



정답과 해설

2-1

○ 진도 교재	2
○ 평가 교재	40

1 시를 즐겨요

핵심 확인 문제

7쪽

1 (3) ○ 2 경험 3 ㉠ 4 낭송

준비 학습

8쪽

1 ㉠ 2 손뼉

3 ㉠ 친구와 다투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싶었는데 망설였던 경험이 떠올랐다. / 행동으로 표현하며 시를 읽으니 더 재미있다.

- 1 “왜 안 부르지?”는 궁금한 듯이 고개를 가우뚱하는 동작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울립니다.
- 2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며 시를 읽고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며 읽기

‘한’이나 ‘두’와 같이 반복되는 말, 재미있는 부분 등에서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며 시를 읽을 수 있습니다.

- 3 경험을 떠올리며 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고 든 생각이나 느낌을 씁니다.

채점 기준 시의 내용과 어울리는 생각이나 느낌을 떠올려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기본 학습

9~11쪽

4 ㉠, ㉡ 5 (1) ㉠ 폭신한 풍선 발 (2) ㉡ 발이 풍선처럼 폭신하면 풀꽃이 다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6 (1) ○ (3) ○ 7 ㉠

8 ㉡ 9 ㉠ 감기에 걸리신 어머니가 걱정되어 주무시는 어머니 대신 빨래를 정리한 적이 있어. 시 속 아이도 피곤한 아버지께서 편안히 주무시기를 바라는 것 같아. 10 ㉠

11 (1) ㉠ 치과에 갔다. (2) ㉡ 치과에서 이를 뽑았다. (3) ㉢ 웅웅거리는 기계 소리 때문에 이 치료를 하기 전에 무서운 마음부터 들었다.

12 (1) ㉠ 아플까 봐 두려워하는 아이의 마음이 느껴진다. (2) ㉡ 자신의 딱지를 다른 친구가 딸까 봐 조마조마해 하는 것 같다.

- 4 시 속 인물은 풀밭을 걸을 때 풀꽃에게 미안하고 자신의 발이 아기 새 발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 5 시 속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며 시의 일부분을 바꾸어 써 봅니다.

채점 기준 ‘폭신한 풍선 발’, ‘조그만 개미 발’, ‘가벼운 스펀지 발’ 등 풀꽃이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떠올려 쓰고, 그 까닭을 인물의 마음과 어울리도록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6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그려 보면 시의 내용이 더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 7 시의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하면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답 피하기

㉡ ‘생쥐처럼 살금살금’을 몸짓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 8 아버지께서 잠에서 깨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는 생쥐처럼 살금살금 양말을 벗겨 드렸습니다.

- 9 시의 표현을 살펴보면 이 시의 상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아이의 마음을 상상해 봅니다.

채점 기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피곤한 아버지께서 편안히 주무시기를 바라는 아이의 마음을 잘 파악하여 그와 비슷한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0 시 속 인물은 치과에 가서 이를 뽑는 것이 아플까 봐 두려워하고 있으며 눈물이 쏙 빠진다고 했으므로 찡그린 표정이나 눈물을 흘리는 표정이 어울립니다.

- 11 시 속 인물과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면 인물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시 속 인물과 비슷한 마음을 느꼈던 경험을 떠올려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2 시 속 인물과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인물의 마음을 상상해 봅니다.

정답 친해지기 「딱지 따먹기」 속 인물의 마음 ㉡

‘딴 아이가 내 것을 치려고 할 때 / 가슴이 조마조마한다.’, ‘딱지가 훌쩍 넘어갈 때 / 나는 내가 넘어가는 것 같다.’를 통해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천 학습

12쪽

13 예 지하철역의 벽에 붙어 있는 시를 읽어 본 적이 있다. 14 낭송

15 예 「잠자는 사자」를 낭송하고 싶다.

16 예 시 속 인물의 행동을 따라 하며 낭송하면 재미 있을 것 같다. / 손뼉을 치며 노래하듯이 낭송해 볼 것이다. 17 ④

13 생활 속에서 시를 읽어 본 경험을 써 봅니다.

14 시의 분위기를 생각하며 시를 소리 내어 읽는 것을 낭송이라고 합니다.

15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고르거나 도서관에 가서 시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16 시를 낭송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시를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을 떠올려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17 시 속 인물의 마음을 상상하며 낭송해야 합니다.

국어 활동

13~14쪽

1 ⑤ 2 ② 3 (1) 숨은 아이 (2) 술래
4 (1) 조마조마한 마음 (2) 답답한 마음 5 ㉠
6 (1) ○ (2) × (3) ○ 7 태민

1 이 시에서 언니는 졸고 있는 동생에게 다가가 장아풀로 간질이며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2 동생에게 장난을 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조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3 (1)은 숨은 아이, (2)는 술래의 모습입니다.

4 숨바꼭질을 한 경험을 떠올려 숨은 아이와 술래의 마음을 짐작해 봅니다.

5 그림의 내용에 어울리는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6 친구와 함께 하고 싶었던 일을 떠올려 보면 시 속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기 쉽습니다.

7 맛있는 음식을 친구와 함께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한 친구를 찾아봅니다.

정리 학습

15쪽

① 주고받으며 ② 조심조심
③ 경험 ④ 두려워하는

단원 평가

16~18쪽

1 ① 2 주고받으며 읽기

3 예 한 발짝 두 발짝 가다가 돌아보면서 표현하고 싶다. 4 ① 5 ③ 6 ④, ⑤

7 예 조그만 개미 발 / 가벼운 스펀지 발

8 미진 9 ② 10 ⑤

11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사자 울음소리처럼 매우 크기 때문이다. 등 12 ①

13 예 피곤한 아버지께서 편안히 주무시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 14 (1) ○ 15 치과 16 ④

17 ⑤ 18 ⑤ 19 예 친구와 함께 떡볶이를 먹고 싶은 마음 20 ㉠, ㉡

1 ‘다시 노나 봐라.’, ‘왜 안 부르지?’라는 내용을 통해 친구와 다툰 일을 쓴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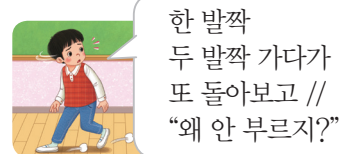
2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시의 내용을 주고받으며 읽고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기

- 주고받으며 읽습니다.
-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며 읽습니다.



- 떠오르는 장면을 행동으로 표현하며 읽습니다.



3 ‘한 발짝 / 두 발짝 가다가 / 또 돌아보고’의 장면에 맞게 몸짓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장면에 어울리는 동작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4 친구와 다툰 내용에 대한 시이므로 그와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생각이나 느낌을 말한 것을 찾아 봅니다.

5 ‘풀꽃에게 미안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6 아기 새는 발이 작아서 풀꽃을 밟지 않을 수 있고, 발가락 사이가 벌어져 있어서 풀꽃을 피해 걷기가 더 편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7 가볍거나 작아서 풀꽃을 밟아도 꽃이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찾아봅니다.
- 8 이 시는 풀밭을 걸을 때의 인물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시입니다.
- 9 졸고 있는 동생에게 장난을 쳤는데 동생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 언니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 10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를 ‘으르렁 드르렁 / 드르르 푸우-’라고 표현했습니다.
- 11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아버지 콧속에 사자 한 마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 12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나 피곤한 가족을 걱정하면서 한 일이 아닌 것을 찾아봅니다.

오답 피하기

① 아버지 콧속에서 사자 한 마리가 울부짖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크다는 것이므로, 동물원에 가서 사자를 본 일은 인물이 겪은 일과 비슷한 경험이 아닙니다.

- 13 시의 장면, 시에 나타난 표현을 살펴보고 이 시의 상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채점 기준 시 속 아이의 마음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4 숨어 있는 친구를 찾았을 때의 신나는 마음에 어울리는 표정을 찾아봅니다.
- 15 치과에서 이를 뽑은 경험을 떠올려 쓴 시입니다.
- 16 이를 뽑는 것이 무서워서 입이 안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 17 이 시에서는 아플까 봐 두려워하는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므로 무섭고 두려워서 찡그린 표정이 어울립니다.
- 18 ㉠에는 자신의 딱지가 훌쩍 넘어갈 때 아쉬운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 19 ‘떡볶이를 먹고 싶은 마음’, ‘친구와 함께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시 속 인물의 마음입니다.
- 20 시는 한 글자씩 끊어서 읽기 보다는 노래하는 느낌이 들도록 낭송하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서술형·논술형 단원 평가

19쪽

1 ㉠ 시에서 줄이 바뀔 때마다 박수를 치고 싶다. / ‘한 걸음, 두 걸음’ 부분과 ‘한 발짝, 두 발짝’ 부분에서 발을 쿵쿵 구르고 싶다.

2 ㉡ 어떤 아이가 풀꽃을 밟을까 봐 조심조심 걷는 장면이 떠오른다.

3 아버지께서 잠에서 깨시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이 느껴진다. 등

4 ㉢ 치과에 갔는데 웅웅거리는 기계 소리 때문에 이를 치료하기 전에 무서운 마음부터 들었던 적이 있다.

5 ㉣ 시 속 인물의 마음을 상상하며 시 속 인물의 행동을 따라 하며 낭송하고 싶다.

- 1 행이나 연의 변화에 맞추어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를 수 있습니다. 또 반복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를 수도 있습니다.

채점 기준 시를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해하고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며 읽고 싶은 부분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2 시의 내용과 인물의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채점 기준 제시된 답 이외에도 ‘어떤 아이가 풀밭에 앉아 풀꽃을 자세히 살펴보는 장면이 떠올라.’ 등 시의 내용과 인물의 마음을 파악한 다음, 떠오르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아이는 피곤한 아버지께서 잠에서 깨시지 않고 편안히 주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양말을 살금살금 벗겨 드렸습니다.

채점 기준 시 속 표현을 살펴보고 아이의 마음을 정확히 파악하여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시 속 아이처럼 무섭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일을 떠올려 봅니다.

채점 기준 시 속 인물이 어디에 갔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인물의 마음은 어떠한지 파악한 다음, 인물과 비슷한 마음을 느꼈던 경험을 떠올려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시를 낭송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떠올려 봅니다.

채점 기준 제시된 답 이외에도 ‘손뼉을 치며 노래하듯이 낭송하고 싶다.’, ‘시의 분위기를 잘 살려서 낭송하고 싶다.’ 등 시를 낭송하는 방법을 떠올려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2 자신 있게 말해요

핵심 확인 문제

23쪽

- 1 자신 있게 2 (1) ○ (2) ×
3 예 모두 이름 정하기 4 ㉠, ㉡

준비 학습

24쪽

- 1 ㉠ 2 ㉠, ㉡
3 예 수업 시간에 내가 아는 답을 자신 있게 발표한 적이 있다.
4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렸기 때문에 / 말끝을 흐려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등
5 ㉠, ㉡

- 1 링링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는 채 더듬더듬 발표를 끝내 버렸습니다.
2 발표하려 나간 링링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3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 있게 발표한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채점 기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 있게 발표한 경험을 떠올려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그림 ㉠에서 여자아이는 말끝을 흐리며 발표했습니다.
5 그림 ㉡의 여자아이는 말끝을 흐리지 않고 또박 또박 말했습니다.

기본 학습

25~2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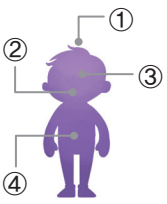
- 6 (1) ㉠ (2) ㉡ (3) ㉢
7 (1) 예 ○○○○ (2) 예 피아노를 잘 칩니다.
(3) 예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8 ㉠
9 (1) 예 모두 이름 정하기 (2) 예 우리 모두 친구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 점박이 공룡이니까, 점박이 모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10 (4) ×
11 (넓은) 찾길 12 ㉠, ㉡ 13 ㉠
14 ㉠ 15 예 낮게 나는 종달새가 위험하지 않게 바람막이를 설치한다. / 고양이와 두꺼비가 천천히 건너도 안전한 육교를 만든다. 16 재성

- 6 바른 자세로 말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7 자기소개할 내용을 정리해 보고 거울을 보며 자신 있게 말하는 연습을 해 봅시다.
8 일기는 자신이 날마다 겪은 일을 쓰는 것입니다.
9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야 하는 상황을 한 가지 정하고 말할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채점 기준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야 하는 상황을 한 가지 정하여 그 상황에 알맞은 말할 내용을 정리하여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0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해야 합니다.

정답 전해지기 자신이 발표를 잘했는지 확인해 보기

	①	말할 내용을 미리 생각하고 말했나요?
	②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나요?
	③	눈은 듣는 사람을 바라보았나요?
	④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로 말했나요?

- 11 숲 한가운데에 넓은 찾길이 생겼습니다.
12 숲 한가운데에 넓은 찾길이 생겨 동물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찾길에 다니는 자동차 때문에 크게 다치거나 죽는 동물 친구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13 동물들은 걱정스럽고 두려울 것입니다.
14 두꺼비는 훨훨 날아서 찾길을 넘어갈 수 있는 새들을 부러워하였습니다.
15 동물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파악하고 동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채점 기준 동물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동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정답 전해지기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말하는 방법

- 글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말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 글의 내용과 관련된 일을 떠올려 보고 말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 16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자신 있게 말해야 합니다.

실천 학습

29쪽

17 (1) 예 『으악, 도깨비다.』 (2) 예 장승 친구들이 도둑을 물리치고 멋쟁이를 구해 내는 장면이 무척 재미있기 때문이다. 18 ④, ⑤

- 17 자신이 평소 재미있게 읽었던 책을 떠올려 봅니다.
18 책에서 인상 깊은 문장을 찾아 쓰고, 기억나는 그림을 간단히 그립니다.

국어 활동

30~32쪽

- 1 (1) 어떤 내용을 대답할지 (2) 손을 가볍게 들고 (3) 자연스러운 자세 (4)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분명하게 (5)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2 (1) ㉠ (2) ㉠
3 (1) ㉠ (2) ㉡ (3) ㉢ (4) ㉣
4 (1) ① (2) ② (3) ③ (4) ④
5 (1) ㉢ (2) ㉣

- 1 자신의 생각을 바른 자세로 자신 있게 발표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2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에는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합니다. 말끝을 흐리면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3 발표할 때에는 듣는 사람을 향해 허리를 꼴꼴이 펴고 바르게 서서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또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4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바른 자세를 생각해 봅니다.

정답 친해지기 다른 사람의 말을 바른 자세로 듣는 방법

- 턱을 괴지 않습니다.
- 다른 친구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 엎드리지 않고 바른 자세로 듣습니다.

- 5 ‘가위바위보’는 [가위바위보]로, ‘널뛰기’는 [널뛰기]로 발음합니다.

정리 학습

33쪽

- ① 내용 ② 목소리 ③ 듣는 ④ 허리
⑤ 또박또박

단원 평가

34~36쪽

- 1 ③, ⑤ 2 ④
3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다. 등
4 수의사 5 ⑤
6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하고 있다. 등
7 예 거울을 보고 자신 있게 말하는 연습을 한다.
8 ① 9 ③
10 예 수업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11 예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는가? /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로 말했는가?
12 ④ 13 동물 마을 14 ⑤
15 넓은 차길 때문에 먹이를 구하러 가지 못해서 등
16 ① 17 ㉣ 18 ②
19 (1) 예 『흥부와 놀부』 (2) 예 착한 흥부가 복을 받고 못된 놀부가 벌을 받는 장면이 무척 재미있다.
20 [귀여운]

- 1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한 경험은 ③, ⑤입니다.
2 목소리가 작고 말끝을 흐려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3 말끝을 흐리지 않고 또박또박 말하면 듣는 사람은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말하는 사람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4 그림 ④와 ⑤를 살펴봅니다.
5 남자아이는 도서관에 가서 자신의 꿈에 대해 발표하기 위해 책을 찾아 읽고 있습니다.
6 그림 ④에서 여자아이의 생각을 살펴봅니다.

재점 기준 바른 자세로 자신 있게 말하는 방법을 알고,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7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책을 읽어 보거나 말하는 내용을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답 친해지기

바른 자세로 자신 있게 말하기 위해 일상 생활에서 꾸준히 연습할 수 있는 활동

- 거울을 보고 말합니다.
-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봅니다.
- 말하는 내용을 녹음해서 들어 봅니다.
- 말하기 전에 말할 내용을 미리 생각합니다.
-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책을 읽어 봅니다.

- 8 손을 가볍게 들고 선생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까지 차분히 기다립니다.
- 9 제시된 그림은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야 하는 상황으로, 그림 ①에서는 모두 이름을 정하고 있습니다.
- 10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한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 11 말할 내용을 미리 생각하고 말했는지, 눈은 듣는 사람을 바라보았는지 등도 확인합니다.

채점 기준 자신이 발표를 잘했는지 확인할 때 생각할 내용 중 한 가지를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2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는 옆드리지 않고 바른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 13 평화롭던 동물 마을에서 생긴 일입니다.
- 14 숲 한가운데에 넓은 찾길이 생겨 동물들이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이 끊겨 버렸습니다.
- 15 넓은 찾길이 생겨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된 고라니는 먹이를 구하러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 16 두꺼비는 훨훨 날아서 찾길을 넘어갈 수 있는 새들이 부럽다고 했습니다.
- 17 동물들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동물 마을에서 생긴 일」에서 동물친구들이 처한 상황

고라니	넓은 찾길 때문에 먹이를 구하러 가지 못합니다.
들고양이	넓은 찾길 때문에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 18 넓은 찾길을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 동물들이 먹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 동물 마을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생각해 봅니다.
- 19 기억에 남거나 재미있게 읽었던 책을 떠올려 봅니다.

채점 기준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의 제목과 그 까닭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20 ‘귀여운’은 [귀여운]으로 읽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귀’가 들어간 낱말의 올바른 발음 예

- 널뛰기[널뛰기]
- 주사위[주사위]
- 귀여운[귀여운]
- 가위바위보[가위바위보]

서술형·논술형 단원 평가

37쪽

- 1 예 처음 만난 짝에게 내 소개를 했는데 친구가 주의 깊게 들어 주어 기분이 좋았다.
- 2 예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하고 있다. / 바른 자세로 말하고 있다.
- 3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로 말한다. 등
- 4 예 나무를 심어서 고라니가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충분히 주면 좋겠습니다.
- 5 (1) 예 『으악, 도깨비다!』 (2) 예 장승 친구들이 도둑을 물리치고 멋쟁이를 구해 내는 장면이 인상 깊다.

- 1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 있게 발표한 경험을 떠올려 느낌이 잘 드러나게 씁니다.

채점 기준 제시된 답 이외에도 ‘수업 시간에 아는 답을 자신 있게 발표한 적이 있는데 발표를 잘 마쳐서 뿌듯했다.’ 등 자신 있게 말한 경험을 떠올려 그때의 기분이 잘 드러나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2 남자아이는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바른 자세로 말하고 있습니다.

채점 기준 남자아이가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바른 자세로 자신 있게 말하는 방법과 관련지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에는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로 말해야 합니다.

채점 기준 자신 있게 말하는 방법을 알고 ④와 관련된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글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말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면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고라니의 고민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라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읽은 책 중에서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을 정하고, 그 책의 인상 깊은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채점 기준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의 제목과 인상 깊은 장면을 모두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친구들에게 소개할 책의 띠지 만들기

- 책에서 인상 깊은 문장을 찾아 씁니다.
- 책에서 기억나는 그림을 간단히 그립니다.

3 마음을 나누어요

핵심 확인 문제

41쪽

- 1 마음을 나타내는 말 2 (3) ○ 3 ㉠
4 몸짓

준비 학습

42쪽

- 1 ⑥ 2 ③ 3 ②, ④ 4 ①
5 ㉠ 만족해요, 자랑스러워요

- 1 자신은 화가 나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생각해 봅니다.
- 2 놀랐을 때 자신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생각해 보고, 그 표정과 관련이 있는 그림을 찾아봅니다.
- 3 활짝 웃는 표정에 어울리는 마음을 나타내는 말은 ‘기뻐요’, ‘즐거워요’입니다.
- 4 친구들의 표정과 몸짓을 살펴봅니다.
- 5 ④ 번 친구는 눈을 감고 미소 짓고 있습니다.

기본 학습

43~51쪽

- 6 ④ 7 ① 8 ① 9 ⑤
10 ③
11 ㉠ 아끼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슬프다.
12 ②
13 ㉠ 즐거울 것 같다. / 재미있을 것 같다. / 심심하지 않을 것 같다. / 외롭지 않을 것 같다.
14 ⑤ 15 ⑤ 16 ⑤
17 기분이 풀렸다. 등 18 아영이의 표정과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부분을 살펴보았다. 등
19 방울토마토 삼 형제의 이름을 지어 주기 위해서 등
20 ⑤ 21 한영이, 두영이, 세영이
22 ⑤ 23 ㉠ 숙제를 잘해서 칭찬받았을 때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다. 24 ④
25 (1) ㉠ 눈을 감고 미소를 짓고 있다. (2) ㉠ 자신 있는 마음 / 만족스러운 마음 26 ②, ③
27 ⑤ 28 (1) ㉠ 아이쿠 (2) ㉠ 길을 잃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니? /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니? 29 (1) ㉠ (2) ㉠

- 6 선생님께서는 월요일마다 친구들에게 기분을 물어보십니다.
- 7 선생님께서 테오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았는데 테오는 모르겠다고 작게 말했습니다.
- 8 “테오에게 여동생이 생겼다던데?”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테오에게 동생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9 릴리는 상을 타 온 언니가 칭찬받았을 때 질투가 난다고 했습니다.
- 10 아민은 자신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처럼 동생이 생긴 테오가 두려울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답 피하기

- ① 에이프릴 ② 에릭
④ 릴리 ⑤ 미나

- 11 에이프릴은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슬프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언제 슬픈 마음이 드는지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슬픈 마음이 드는 상황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2 야구 시합에서 홈런을 쳤을 때 미나는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자랑스러워요’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은 ‘뿌듯해요’입니다.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쓸 때에는 그 말이 주는 느낌이나 분위기가 비슷한 말이어야 합니다.
- 13 친구들은 테오가 어떤 마음이 들 것이라고 했는지 살펴보고 자신은 동생이 생긴다면 어떤 마음이 들지 생각해 봅니다.
- 14 아영이는 자신이 키우는 방울토마토 이름을 지어 주고 싶어서 영미에게 물어보았지만 영미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 15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를 통해 아영이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아영이의 마음이 나타난 부분을 찾는 방법 ㉠

아영이의 마음이 나타난 부분	아영이의 마음이 나타난 부분을 찾는 방법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서운한’과 같이 마음을 직접 나타내는 말을 찾아봅니다.

16 아영이가 집에 와서 방울토마토에게 한 말을 잘 살펴봅니다.

17 아영이는 방울토마토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 까 기분이 조금 풀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일어난 일을 생각하며 아영이의 마음 살펴보기

일어난 일	아영이의 마음
집으로 돌아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일	기분이 풀림.

18 마음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아영이의 표정과 모습을 살펴보면 아영이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글에서 인물의 마음이 나타난 부분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아영이의 표정과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부분을 살펴보다.' 등과 같은 내용으로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19 아영이네 가족은 방울토마토 삼 형제의 이름을 지어 주기 위해서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20 엄마는 방울토마토 삼 형제의 모습을 보니 아영이 어렸을 때 웃던 얼굴이 생각나서 '방글, 방실, 방긔'이라는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21 방울토마토 삼 형제의 이름은 아영이의 생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2 아영이는 가족회의에서 자신의 생각이 뽕히니까 기분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23 아영이에게 있었던 일을 알아보고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마음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아영이에게 있었던 일을 파악하여 그와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고,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24 인물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을 직접 나타내는 말을 찾아보고, 마음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그런 마음이 든 상황이나 까답이 나타난 부분을 살펴봅니다. 또 마음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인물의 표정이나 모습을 살펴봅니다.

25 아이쿠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짓고 있으므로 자신 있거나 만족스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26 아이쿠의 표정과 몸짓을 살펴보고 마음을 짐작해 봅니다.

27 아이쿠는 안전 수칙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8 「여기가 어디야?」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 누구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지 생각하여 만화 영화의 내용과 관련지어 하고 싶은 질문을 정리해 봅니다.

채점 기준

역할놀이에 초대하고 싶은 등장인물과 그 등장인물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어울리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29 아이쿠의 표정을 살펴보고 언제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실천 학습

52쪽

30 ⑤

31 ①

32 예 활짝 웃으며 밝은 목소리로 말한다.

30 그림의 상황을 파악하고 인물의 마음을 상상하여 표정과 몸짓에 어울리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31 친구가 아끼는 장난감을 빌려주면 고마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32 역할놀이를 할 때에는 인물의 마음에 어울리는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채점 기준

그림의 상황과 남자아이에 어울리는 목소리와 표정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국어 활동

53~56쪽

1 (1) 힘들어요 (2) 화나요 (3) 궁금해요 (4) 슬퍼요 (5) 부러워요

2 (1) 마음을 나타내는 말 (2) 까답 (3) 까답 (4) 마음을 나타내는 말 3 ②, ③, ⑤

4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고 거슬릴 때 드는 감정 등 5 ⑤ 6 예 부모님께서 안아 주실 때 포근해요. / 부모님께서 꼭 안아 주시면 마음이 사라져요. 7 기쁨

8 예 선생님께 칭찬을 받을 때 9 ⑤

10 사랑 11 ①, ② 12 돈주머니

13 ⑤ 14 ① 15 예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욕심을 내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16 예 기쁘다.

- 1 인물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 가운데에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 2 상황이나 까닭을 자세하게 표현하면 인물의 마음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 3 포근함은 보드랍고 따뜻해서 편안한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 4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고 거슬릴 때 드는 감정을 미움이라고 합니다.
- 5 아껴 뒀던 간식을 동생이 먹어 버렸을 때 동생이 밉다는 생각이 들 거라고 했습니다.
- 6 부모님이 안아 주시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생각해 봅니다.
- 7 힘이 샘솟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감정은 기쁨입니다.
- 8 기쁨은 신나는 일 때문에 생기는 정말 좋은 기분입니다.
- 9 ㉠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잘못을 뉘우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 10 모든 감정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바로 사랑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 11 사랑하면 우리는 때로 굉장히 강해지거나 때로 아주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 12 농부는 길에 떨어져 있는 돈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 13 농부의 말과 표정을 살펴봅니다.
- 14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돈을 더 벌고 싶은 욕심이 생겨 돈주머니에 서른 냥이 들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 15 사또는 거짓말을 한 사람에게 화가 나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농부에게 그 돈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 16 농부처럼 생각지 못한 돈이 생긴다면 어떻게 상 상해 봅니다.

정리 학습

57쪽

- ① 행복해요 ② 뿌듯해요 ③ 상황 ④ 모습
⑤ 무서운

단원 평가

58~60쪽

- 1 ⑤ 2 ⑤ 3 예 놀랐어요, 자신 있어요
4 무서워요, 겁나요 등 5 ②
6 예 “내가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때처럼 말이야.”
7 ②, ③ 8 ④ 9 ㉠
10 ‘서운한’과 같이 마음을 직접 나타내는 말을 찾아냈다. 등
11 ‘방울토마토 삼 형제 이름 짓기’ 가족회의
12 (1) ㉠ (2) ㉡ 13 ②, ⑤ 14 ④
15 ②
16 예 길을 잃었을 때 왜 제자리에 서 있지 않았니?
17 (1) ○ 18 ②
19 예 걱정하지 마. 조심히 잘 가지고 놀게. 아끼는 장난감인데 빌려줘서 고마워. 20 은호, 진현

- 1 ‘부끄러워요’에 어울리는 별의 표정은 ⑤입니다.

오답 피하기

- ① 무서워요 등 ② 즐거워요 등
③ 놀라워요 등 ④ 슬퍼요 등
⑤ 부끄러워요 등 ⑥ 화나요 등

- 2 그림에 나타난 별의 표정을 따라 해 보고, 자신은 언제 이런 표정을 짓는지 떠올려 봅니다.
- 3 ‘행복해요, 화나요, 외로워요, 심심해요, 즐거워요, 부끄러워요’ 등 마음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말을 더 생각해 봅니다.
- 4 여자아이의 동작과 표정에 어울리는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 5 테오에게 동생이 생겼다는 선생님의 말을 들은 친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 6 아민이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 두렵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언제 두려운 마음이 드는지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두려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떠올려 알맞게 바꾸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7 ‘행복해요’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은 ‘기뻐요’와 ‘즐거워요’입니다.

오답 피하기

- ① 슬퍼요, ④ 우울해요 → 짜증 나요
⑤ 무서워요 → 두려워요 / 겁나요

- 8 영미는 공기놀이를 하면서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 9 아영이의 마음이 나타난 부분은 ㉠입니다.
- 10 ㉠에는 ‘서운한’과 같이 마음을 직접 나타내는 말이 있습니다.

채점 기준 ‘마음을 직접 나타내는 말을 찾아봤다.’ 등과 같은 말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1 저녁밥을 먹은 아영이네 가족은 ‘방울토마토 삼형제 이름 짓기’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 12 엄마와 아영이가 한 말을 살펴봅니다.
- 13 아영이는 자신의 생각을 말할 차례가 되자 조금 긴장도 되고 부끄러웠다고 했습니다.
- 14 보드랍고 따듯해서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은 포근함입니다.

오답 피하기

미움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고 거슬릴 때 드는 감정입니다.
신남	어떤 일이 정말 재밌어 보여서 막해 보고 싶은 감정입니다.
기쁨	힘이 샘솟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감정입니다.
뉘우침	우리가 뭔가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할 때 드는 감정입니다.

- 15 길을 잃은 아이쿠는 겁이 나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아이쿠의 표정과 몸짓을 살펴봅니다.
- 16 아이쿠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며 궁금한 점을 생각해 봅니다.
- 17 아이쿠의 표정으로 보아 무서운 마음에 어울리는 상황을 찾아야 합니다.
- 18 길을 가다 돈주머니를 발견한 농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 19 친구가 아끼는 장난감을 빌려주면 어떤 마음일지 상상해 봅니다.

채점 기준 친구가 아끼는 장난감을 빌려주면 어떤 마음이 들지 상상하여 그림 속 인물의 표정과 몸짓에 어울리는 말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20 역할놀이를 할 때에는 인물의 마음을 자세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서술형·논술형 단원 평가

61쪽

- 1 (1) 활짝 웃는 표정 등 (2) 예 즐거워요, 기뻐요, 행복해요, 만족해요, 신나요
- 2 예 “어쩌면 샘날지도 몰라.”
- 3 예 착한 일을 하고 선생님께 칭찬받았을 때처럼 자랑스러울 것 같다.
- 4 마음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그런 마음이 든 상황이나 까닭이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이다. 등
- 5 예 눈을 크게 뜨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화난 마음일 것 같다.
- 6 예 다시 잘 자라면 정말 기쁠 거야.

- 1 활짝 웃는 표정에는 ‘즐거워요’ 또는 ‘기뻐요’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채점 기준 별의 표정과 그에 어울리는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모두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2 ‘질투 나요’는 ‘샘나요’ 등과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질투 나요’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을 넣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동생이 생긴다면 어떤 마음이 들지, 그런 마음을 언제 느끼는지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제시된 답 이외에도 ‘좋아하는 그림을 그릴 때처럼 행복할 거야.’, ‘아끼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처럼 슬퍼요.’ 등과 같이 동생이 생긴다면 어떤 마음이 들지 알맞은 상황과 관련지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글에서 인물의 마음이 나타난 부분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인물의 마음이 나타난 부분을 찾는 방법을 알고 정확하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인물의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인물의 몸짓을 쓰고, ‘화난 마음일 것이다.’와 같은 내용으로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6 그림의 상황을 살펴보고 남자아이의 표정에 어울리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남자아이의 마음을 상상하여 알맞은 말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4 말놀이를 해요

핵심 확인 문제

65쪽

- 1 콩지 따기 2 ○ 3 채소 4 사자

준비 학습

66쪽

- 1 ⑤ 2 (1) 예 돌나물 (2) 예 돌 틈에 잘 돋
아나서 3 (1) ① (2) ② 4 ③, ④
5 (1) 예 나이 (2) 예 나팔꽃

- 1 「나물 노래」에서 새봄이라서 봄 냉이라고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오답 피하기

- ① 살살 달래서 캐야 해서 등
② '나리나리'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등
③ 꼬불꼬불해서 등
④ '질경질경' 씹어야 해서 등

- 2 낱말의 소리와 뜻이 나물의 이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채점 기준

자신이 평소에 먹어 본 나물을 떠올려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같은 글자가 낱말의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4 끝말잇기 놀이는 앞의 낱말 끝 글자와 뒤의 낱말 첫 글자가 같습니다.
5 첫 글자로 말 잇기 놀이는 낱말의 첫 글자가 같으므로 '나' 자로 시작하는 낱말을 떠올려 씁니다.

기본 학습

67~69쪽

- 6 ③ 7 ④ 8 예 장미는 예뻐
9 높다 (높다) 10 (1) ○
11 (1) 예 숟가락 하나 (2) 예 젓가락 둘
12 예 나는 시장에 가서 꽃을 사 봤어.
13 시장 14 ⑤ 15 예지 16 ①
17 말 덧붙이기 놀이 18 토끼 19 ①
20 예 놀이터에 가면 / 그네도 있고, / 미끄럼틀도 있고, / 시소도 있고. 21 ⑤

- 6 「사과는 빨개」처럼 비슷한 것을 떠올려서 말을 이어 가는 놀이를 콩지 따기 말놀이라고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콩지 따기 말놀이 방법 예

- 맨 첫 사람이 “사과는 빨개.”라고 말합니다.
- 그다음 사람은 ‘사과는 빨개’의 콩지인 ‘빨개’를 앞으로 보내 “빨가면”이라고 말한 뒤에 빨강다고 생각한 것을 떠올려 “빨가면 딸기”와 같이 연결해 말합니다.
- 그다음 사람은 ‘딸기’가 콩지니까 “딸기는”이라고 말한 뒤에 딸기에 연결해 말합니다.
- 콩지 따는 낱말이 앞 낱말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듭니다.

- 7 「사과는 빨개」는 앞에 있는 낱말이 바로 뒤에 이어지고 비슷한 것을 떠올려서 노래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 8 콩지 따기 말놀이의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 9 ‘높다 높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정답 친해지기 같은 말로 이어 말하기 놀이 방법 예

- ‘높다’와 관련된 낱말을 떠올립니다.
- 떠오른 낱말을 넣어 “높다 높다 ○○이/가 높다.”라고 말합니다.
- ‘높다’를 표현할 수 있는 몸짓도 함께 합니다.
- 새로운 낱말을 넣으며 한 사람씩 “높다 높다 ○○이/가 높다.”라고 이어 말합니다.

- 10 (2)는 ‘넓다 넓다’에 어울리는 몸짓입니다.

- 11 숫자 1~2와 관련된 낱말을 떠올려 봅시다.

정답 친해지기 주고받는 말놀이 방법 예

- 질문하고 싶은 것을 물어봅니다.
- 다른 사람이 질문에 답을 이야기합니다.
- 서로 주고받으며 질문하고 답합니다.

- 12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파는지 생각해 봅시다.

채점 기준

시장에 가 본 경험을 떠올려 시장에서 파는 물건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3 채소 가게, 과일 가게 등이 있는 곳은 시장입니다.

- 14 오징어는 생선 가게에서 파는 물건입니다.

- 15 이미 말한 물건의 이름을 다시 말하거나 다섯을 셀 때까지 물건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면 다음 친구에게 차례가 넘어갑니다.

- 16 꽃 가게에서는 프리지어, 국화, 수국, 장미, 카네이션, 안개꽃 등을 팝니다.
- 17 친구들은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을 떠올려 말 덧붙이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 18 말 덧붙이기 놀이는 앞 친구의 말을 반복하고 새로운 말을 덧붙이는 놀이입니다.
- 19 앞 친구의 말과 다르게 반복하면 다음 친구에게 차례가 넘어갑니다.
- 20 말 덧붙이기 놀이 방법을 생각하며 놀이터에서 볼 수 있는 놀이 기구를 다양하게 떠올려 봅니다.

채점 기준 놀이터에서 볼 수 있는 놀이 기구를 떠올려 말 덧붙이기 놀이 방법에 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21 강아지풀은 풀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천 학습

70쪽

- 22 이름 23 (1) ㉠ (2) ㉡
- 24 크기가 크기 때문에 왕만두라고 했을 것 같다. 등
- 25 (1) 재료 (2) 크기 (3) 모양

- 22 만두 가게에 간 친구는 차림을 보며 만두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 23 찐만두, 군만두는 만드는 방법에 따라, 고기만두, 김치만두는 음식의 재료에 따라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 24 왕만두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왕만두라고 했을 것입니다.

채점 기준 왕만두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을지 생각해 하여 이름과 어울리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25 김밥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국어 활동

71~72쪽

- 1 (1) 예 코끼리 코는 길어 (2) 예 동그라면 수박
- 2 (1) 예 좁다 좁다 길이 좁다. (2) 예 깊다 깊다 부모님의 사랑이 깊다. 3 (1) 오렌지 (2) 하늘
- 4 (1) ㉠ (2) ㉡ (3) ㉢
- 5 떡집에 가면 콩떡도 있고, 시루떡도 있고.
- 6 (1) 불가심 (2) 마루

- 1 비슷한 점을 떠올리면 콩지 따기 말놀이를 하기 쉽습니다.

- 2 같은 말로 이어 말하기 놀이 방법을 생각하며 이어질 말을 떠올려 봅니다.
- 3 주고받는 말놀이는 묻고 답하면서 말을 주고받는 놀이로, 숫자, 색깔 등 여러 가지로 바꾸어 할 수 있습니다.
- 4 그림에 어울리는 재미있는 떡 이름을 생각해 봅니다.
- 5 말 덧붙이기 놀이를 할 때에는 앞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들어야 하며 여러 가지 낱말을 빨리 떠올려야 놀이를 잘할 수 있습니다.
- 6 ‘불가심’은 ‘물 등을 머금어 불의 안을 깨끗이 씻음.’, ‘마루’는 ‘등성이를 이루는 지붕이나 산 등의 꼭대기.’라는 뜻입니다.

정리 학습

73쪽

- 1 콩지 따기 2 주고받는
- 3 과일 4 얼룩말

단원 평가

74~76쪽

- 1 ㉠
- 2 예 참 맛있어서 참나물이라고 지어졌을 것 같다.
- 3 끝말잇기 놀이 4 ㉠ 5 ㉢
- 6 ㉠ 7 ㉠ 8 ㉠
- 9 예 길가의 민들레 10 기훈 11 꽃 가게
- 12 ㉠ 13 예 앞 친구의 말을 반복하고 새로운 말을 덧붙이는 놀이이다.
- 14 예 코스모스도 있고, / 해바라기도 있고.
- 15 (1) 고기만두, 김치만두 (2) 찐만두, 군만두
- 16 예 모양이 삼각형이라 삼각김밥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을 것 같다. 17 ㉡
- 18 주고받는 말놀이
- 19 예 네모는 뭐니? / 포근한 이불 20 ㉢, ㉣

- 1 나물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생각해 봅니다.
- 2 낱말의 소리와 뜻을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참나물’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을지 생각해 이름과 어울리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앞의 낱말 끝 글자와 뒤의 낱말 첫 글자가 같은 끝말잇기 놀이입니다.
- 4 첫 글자로 말 잇기 놀이는 각 낱말의 첫 글자가 같습니다.
- 5 비슷한 짓을 떠올려서 말을 이어 가는 놀이를 쫓지 따기 말놀이라고 합니다.
- 6 ‘포근해’가 쫓지이므로 ‘포근하면’이라고 한 다음, 포근한 느낌을 주는 말을 떠올려 바꾸어 씁니다.
- 7 하늘, 나무, 산, 건물, 미끄럼틀은 모두 ‘높다’와 관련된 낱말들입니다.
- 8 ‘넓다’와 어울리는 낱말을 생각해 봅니다.
- 9 주고받는 말놀이의 방법을 생각하며 ‘낮다’와 관련된 낱말을 떠올려 봅니다.
- 10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나 시장에서 물건을 사 본 경험을 떠올려 보고, 알맞지 않은 내용을 말한 친구를 찾아봅니다.
- 11 국화, 장미, 안개꽃은 꽃 가게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의 이름입니다.
- 12 ‘고등어’는 생선 가게에서 파는 물건의 이름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시장에서 파는 물건의 이름을 떠올려
재미있게 시장 꾸미기 ㉠



- 13 말 덧붙이기 놀이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 14 꽃밭에서 볼 수 있는 꽃을 떠올려 앞에서 한 말을 반복하고 새로운 말을 덧붙여야 합니다.
- 채점 기준** 꽃밭에서 볼 수 있는 꽃을 떠올려 이어질 내용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5 우리가 즐겨 먹는 만두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을지 생각해 봅니다.
 - 16 김밥의 이름은 재료, 크기, 모양 등에 따라 지어지기도 합니다.
 - 17 ‘많은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 또는 첫째가는 것.’이라는 뜻의 ‘ 으뜸 ’이 어울립니다.

- 18 묻고 답하면서 말을 주고받는 놀이는 주고받는 말놀이입니다.
- 19 모양에 알맞은 말을 떠올려 묻고 답을 하도록 합니다.

채점 기준 주고받는 말놀이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이어질 내용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20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말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낱말을 익힐 수 있습니다.

서술형·논술형 단원 평가

77쪽

- 1 ㉠ 예 콩이 콩콩 튀어서 콩나물이라고 지어졌을 것 같다.
- 2 (1) ㉠ 예 삼각형 모서리 (2) ㉠ 예 네발자전거 바퀴
- 3 ㉠ 예 사과, 수박, 복숭아
- 4 (1) ㉠ 예 동물원에 가면 / 호랑이도 있고, (2) 동물원에 가면 / 호랑이도 있고, / 원숭이도 있고.
- 5 ㉠ 예 불고기 피자는 불고기를 재료로 사용하여 만든 피자이기 때문에 불고기 피자라고 했을 것 같다.

- 1 낱말의 소리와 뜻을 생각해 보고 말의 재미를 느껴 봅니다.

채점 기준 ‘콩나물’이라는 나물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을지 이름과 어울리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2 숫자 3, 4와 관련해 떠오르는 낱말을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숫자 3, 4와 어울리는 낱말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과일 가게에서 파는 물건을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과일 가게에서 파는 물건을 세 가지 이상 정확하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장소에 어울리는 낱말을 다양하게 떠올리면 말 덧붙이기 놀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 보기에서 한 가지 장소를 고르고, 그 장소에 어울리는 낱말들을 하나씩 덧붙여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자주 먹는 음식의 종류를 떠올려 재료나 크기, 모양 등을 생각하여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을지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자주 먹는 음식의 이름을 떠올려 음식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을지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5 낱말을 바르고 정확하게 써요

핵심 확인 문제

81쪽

1 정확하게 2 × 3 늘이다 4 쓴 사람

준비 학습

82쪽

1 달히고, 다치고 2 예 소리만 듣고 그대로 써서 문장의 뜻에 맞지 않는 낱말을 썼기 때문이다.
3 ㉠, ㉡ 4 (1) ㉠ (2) ㉠
5 (1) 시켜서 (2) 식혀서

- 1 그림 2의 내용으로 보아, 그림 1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달히고’를 ‘다치고’로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다치다’와 ‘달히다’를 사용하는 때

다치다	몸의 어느 부분을 맞거나 부딪쳐 상처가 났을 때.
달히다	문이나 서랍 등이 다른 것에 의해 달아졌을 때.

- 2 그림 4에서 남자아이가 ‘소리가 비슷해서 헛갈렸어.’라고 말했습니다.

채점 기준 제시된 답 외에 ‘달히고’와 ‘다치고’가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써어도 정답으로 합니다.

- 3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면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글을 읽을 때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4 ‘반듯이’와 ‘반드시’의 뜻을 알고, 그림 1과 2의 상황에 알맞는 낱말이 들어간 문장을 고릅니다.

정답 친해지기 ‘반듯이’와 ‘반드시’의 뜻

반듯이	물건이 비뚤어지지 않고 바르다.
반드시	틀림없이 꼭.

- 5 ‘시켜서’와 ‘식혀서’의 뜻을 구분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시키다’와 ‘식히다’의 뜻

시키다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게 하다.
식히다	더운 기가 없어지게 하다.

기본 학습

83~87쪽

- 6 (1) ㉠ (2) ㉠ (3) ㉡ (4) ㉡
7 (1) 마치고 (2) 이따가 (3) 걸음 8 ㉡
9 느리다 10 (1) 늘이다 (2) 깊이
11 1교시 국어 시간 12 ㉡
13 나도 은서처럼 책을 실감 나게 잘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14 (1) ㉡ (2) ㉠
15 (1) 맞습니다 (2) 받칩니다 16 ㉢
17 승범 18 ㉠
19 (1) 첫인사 (2) 전하고 싶은 말 (3) 끝인사
(4) 쓴 날짜 (5) 쓴 사람
20 고마웠던 일을 자세히 쓴다. / 고맙다는 말만 쓰지 말고 고마운 일과 까닭을 자세히 쓴다. 등

- 6 ㉠은 학교 수업이 끝나서 교문을 나서는 그림이므로 ‘마치다’를 뜻하고, ㉡은 과녁에 화살이 꽂힌 그림이므로 ‘맞히다’를 뜻하며, ㉢은 남자아이가 걷고 있는 그림이므로 ‘걸음’을 뜻하고, ㉣은 농부가 밭에 무언가를 뿌리고 있는 그림이므로 ‘거름’을 뜻합니다.
7 ‘학교를 마치고’, ‘이따가 놀이터에서’, ‘몇 걸음인지’라고 써야 알맞습니다.
8 문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앞뒤 내용에 알맞은 낱말을 써야 합니다.
9 달팽이는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지 않으므로 ‘어떤 동작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라는 뜻의 ‘느리다’라는 낱말을 쓰는 것이 알맞습니다.
10 (1)은 ‘엿가락을 늘이다’, (2)는 ‘물이 깊지’가 알맞은 낱말입니다.
11 1교시 국어 시간에 은서가 책 읽기를 할 때 일어난 일을 쓴 글입니다.
12 은서는 진짜 호랑이가 된 것처럼 실감 나게 글을 읽었기 때문에 선생님과 친구들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13 실감 나게 책을 읽는 은서를 보며 ‘나’는 자신도 은서처럼 책을 실감 나게 잘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4 ㉠의 그림은 남자아이가 어딘가를 걸어가고 있는 그림이므로 ‘갔다’를 뜻하고, ㉡의 그림은 필통 두 개의 모양이 똑같이 생겼다는 그림이므로 ‘같다’를 뜻합니다.

- 15 (1)은 ‘문제의 답이 맞습니다.’이고, (2)는 ‘우산을 받칩니다.’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맞다/말다’와 ‘바치다/받치다’의 뜻

맞다	문제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아니하다.
말다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담당하다.
바치다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정중히 드리다.
받치다	비가 통하지 못하도록 우산을 펴 들다.

- 16 ①은 1의 두 번째 그림, ②는 네 번째 그림, ④는 첫 번째 그림, ⑤는 세 번째 그림에 해당하는 방법입니다.
- 17 편지를 쓸 때에는 그때의 날씨를 자세하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 18 한결이는 날마다 맛있는 급식을 준비해 주시는 영양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 19 ㉠은 첫인사, ㉡은 전하고 싶은 말, ㉢은 끝인사, ㉣은 쓴 날짜, ㉤은 쓴 사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20 누구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고마웠던 일은 무엇이고, 그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떠올린 후 고마웠던 일을 자세히 씁니다.

채점 기준 고마웠던 일을 자세히 쓴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실천 학습

88쪽

21 (1) 다 (2) 가 (3) 나 (4) 라

22 (1) 예 한결 (2) 예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을 한결이가 도와주었다. 23 풀이 예시 답안 참고

24 ④ 25 미영

- 21 그림을 보고 각각 어떤 상황인지 알아봅니다.
- 22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누구에게 어떤 일을 겪은 것을 마음을 전하는 편지로 쓰고 싶은지 정리합니다.

- 23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써 봅니다.

예시 답안

예 한결이에게

한결아, 안녕? 나 지은이야.

어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을 도와줘서 고마워. 설명도 쉽게 해 줘서 이해하기 쉬웠어. 정말 고마워.

그럼 안녕.

2000년 4월 25일

지은이가

채점 기준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고, 편지를 쓸 때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편지를 쓰는 까닭이 드러나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24 편지를 쓴 장소와 쓴 시간은 편지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아닙니다.
- 25 편지를 다 쓴 후 편지와 편지 봉투를 예쁘게 꾸며 받을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국어 활동

89~90쪽

1 (1) ㉠ (2) ㉡ (3) ㉢ (4) ㉤

2 (1) 느리다 (2) 놀이다 (3) 이따가 (4) 있다가

3 (2) ○ 4 (1) 마치고 (2) 갔다

5 (1) 민수 (2) 할머니 6 (1) ㉢ (2) ㉤

7 (1) 예 응, 고마워. 너도 참 좋은 친구야. (2) 예 그래. 우리,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자. (3) 예 좋아. 내가 먼저 술래할게.

- 1 낱말의 정확한 뜻을 알아봅니다.
- 2 소리가 비슷한 낱말의 뜻을 잘 구분하여 문장에 어울리는 낱말을 골라 봅니다.
- 3 ‘마치고’, ‘같다’와 같이 낱말을 잘못 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 4 ‘학교를 마치고’, ‘놀이터에 갔다 와서’라고 써야 합니다.
- 5 민수는 할머니께 이번 여름 방학에 꼭 시골 할머니 댁에 가겠다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 6 ㉠은 ‘받는 사람’, ㉡은 ‘첫인사’, ㉢은 ‘전하고 싶은 말’, ㉤은 ‘끝인사’, ㉤은 ‘쓴 날짜’입니다.
- 7 맞장구치는 말을 할 때에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여 말을 주고받는 상황에 맞게 해야 합니다.

정리 학습

91쪽

- ① 닫히다 ② 걸음 ③ 늘이다 ④ 첫인사
⑤ 전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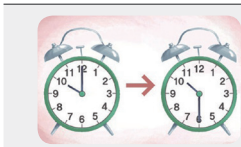
단원 평가

92~94쪽

- 1 문이 다치고 2 (1) 다치다 (2) 닫히다
3 ④, ⑤ 4 (1) 반듯이 (2) 반드시
5 (1) ㉠ (2) ㉡
6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등
7 (1) 마치고 (2) 걸음 8 ④
9 (1) 깊다 (2) 깊다 10 진짜 호랑이가 된 것처럼 실감 나게 읽었다. 등 11 ⑤
12 (1) ○ 13 같다 14 (1) ㉠ 1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맞습니다. (2) ㉡ 비가 와서 우산을 받칩니다.
15 ② 16 ② 17 정민 18 ㉢
19 ② 20 (1) ×

- 1 남자아이는 ‘문이 닫히고’를 듣고 ‘문이 다치고’로 잘못 썼습니다.
2 ‘다치다’는 첫 번째 상황에서, ‘닫히다’는 두 번째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3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면 말을 할 때나 글을 읽을 때 그 내용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4 ‘반듯이’와 ‘반드시’의 뜻을 구분해 봅시다.
5 ‘있다가’는 내 몸이 어딘가에 있는 것이고, ‘이따가’는 내가 잠시 시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제시된 그림의 상황 알아보기



시간이 10시에서 10시 30분으로 흐른 그림



남자아이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없어진 그림

- 6 ‘맞히고’와 ‘거름’처럼 문장에 알맞지 않은 낱말이 들어 있습니다.

채점 기준

제시된 답 외에도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리가 비슷한 다른 낱말을 썼기 때문이다.’ 등의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7 ‘학교를 마치고’, ‘몇 걸음인지’라고 써야 합니다.

- 8 어떤 동작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뜻으로 쓸 때에는 ‘느리다’로 써야 합니다. ④는 ‘거북은 토끼보다 느리다.’라고 써야 알맞습니다.

- 9 ‘우물이 깊다.’와 ‘구멍 난 양말을 깊다.’와 같이 써야 합니다.

- 10 은서는 진짜 호랑이가 된 것처럼 실감 나게 글을 읽었습니다.

채점 기준

제시된 답 외에도 ‘이야기를 실감 나게 잘 읽었다.’와 같은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1 책을 읽는 은서의 모습을 보며 ‘나’는 은서처럼 책을 실감 나게 잘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12 (1)의 그림은 ‘붙이다’와 어울리는 그림이고, (2)의 그림은 ‘부치다’와 어울리는 그림입니다.

- 13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뜻으로 쓸 때는 ‘같다’를 써야 합니다.

오답 피하기

‘갔다’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 14 ‘맞다’는 ‘문제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아니하다.’는 뜻이고, ‘받치다’는 ‘비가 통하지 못하도록 우산을 펴 들다.’는 뜻이므로 낱말의 뜻이 잘 드러나게 문장을 씁니다.

채점 기준

(1)에는 ‘내가 적은 답이 맞습니다.’, ‘지수가 쓴 답은 틀리고, 민호가 쓴 답은 맞습니다.’ 등과 같은 문장을 썼고, (2)에는 ‘그릇에 쟁반을 받칩니다.’, ‘영민이는 두 손을 받쳐 물건을 들었습니다.’ 등과 같은 문장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5 할머니께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하는 그림입니다.

- 16 편지를 쓸 때 들어가야 하는 내용 중 끝인사가 빠져 있습니다.

- 17 고맙다는 말만 쓰지 말고 고마운 일과 까닭을 자세히 써야 합니다.

- 18 민수는 이번 여름 방학에 할머니께 놀러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 19 할머니는 민수의 편지를 읽고 기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 20 편지 쓰는 차례에 맞게 쓰되, 하고 싶은 말을 자세하게 쓰도록 합니다. 편지를 길게 썼는지는 확인할 내용으로 알맞지 않습니다.

서술형·논술형 단원 평가

95쪽

- 1 예 받아쓰기할 때 소리 나는 대로 써서 틀린 적이 있다.
- 2 (1) 예 목표에 닿게 하는 것. (2) 예 어떤 일을 끝내는 것.
- 3 예 앞뒤 문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문장의 뜻을 확인하여 낱말의 뜻을 구분한다.
- 4 날마다 맛있는 급식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
- 5 '받을 사람 - 첫인사 - 전하고 싶은 말 - 끝인사 - 쓴 날짜 - 쓴 사람'의 차례대로 편지를 써 봅시다. 등

- 1 평소에 소리가 비슷한 낱말의 뜻이 헷갈린 경험이나 잘못 쓴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채점 기준 '알림장을 못 써서 친구와 통화했는데 글자를 다르게 받아쓴 적이 있다.' 등과 같이 소리가 비슷한 낱말을 헷갈렸던 경험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2 과녁에 화살을 맞힌 그림과 학교를 마치고 친구와 교문을 나서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고 그 뜻을 떠올려 보거나 사전을 찾아봅시다.

채점 기준 제시된 답 외에도 (1)번에 '쏘거나 던지거나 한 물체가 어떤 물체에 닿다. 또는 그런 물체에 닿음을 입다.'와 같은 내용을 썼거나 (2)번에 '어떤 일이나 과정, 절차 등이 끝나다. 또는 그렇게 하다.'와 같은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같다'와 '갸다'처럼 소리가 비슷한 낱말은 앞뒤 문장의 내용을 생각하며 낱말의 뜻을 구분해 봅니다.

채점 기준 제시된 답과 같은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날마다 맛있는 급식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채점 기준 제시된 답과 같은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받을 사람 - 첫인사 - 전하고 싶은 말 - 끝인사 - 쓴 날짜 - 쓴 사람'이 편지를 쓰는 차례입니다.

채점 기준 제시된 답과 같이 편지에 들어갈 내용을 차례대로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6 차례대로 말해요

핵심 확인 문제

99쪽

- 1 어제 2 시간 3 (2) ○
- 4 (1) 일이 일어날 때 (2) 일어날 일이나 하고 싶은 일

준비 학습

100쪽

- 1 (1) ㉠ (2) ㉡ (3) ㉢ (4) ㉣ 2 ㉤
- 3 밤 열두 시, 오후, 아침 4 ㉠ → ㉡ → ㉢

- 1 그림에 해당하는 상황을 보기에서 찾아 씁니다.
- 2 여자아이가 「신데렐라」를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 3 여자아이가 말한 「신데렐라」에는 차례를 나타내는 말이 '밤 열두 시, 오후, 아침' 세 가지입니다.
- 4 차례를 나타내는 말로 보아, '아침 → 오후 → 밤 열두 시'의 순서대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여자아이가 잘한 점과 잘못된 점

여자아이는 '밤 열두 시', '오후', '아침'과 같은 일이 일어난 차례를 나타내는 말을 잘 사용했지만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학습

101~108쪽

- 5 배가 고파서 등
- 6 (1) 아침 (2) 저녁 (3) 밤 7 ㉤
- 8 (1) 3 (2) 2 (3) 1 9 ㉢, ㉣, ㉤
- 10 ㉣ 11 아침에 12 ㉡
- 13 동굴로 들어가게 했다. 등 14 ㉤
- 15 (1) 어느 날 (2) 저녁 (3) 밤 (4) 이튿날 아침
- 16 ㉤ 17 ㉤ 18 점심때, 가을, 겨울
- 19 ㉠ → ㉢ → ㉡ 20 그림 ㉣
- 21 예 1교시에 모여서 다 같이 준비 체조를 함. → 예 오전 9시 30분에 반별로 50미터 달리기를 했는데 3등을 함. → 예 오전 10시에 청색, 홍색 색 카드 뒤집기 경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짝수 반이 이기고 두 번째는 홀수 반이 이김. → 예 오전 10시 30분에 각 반 달리기 대표들이 나와 이어달리기를 함.

- 5 굶주린 호랑이는 고개를 넘고 있는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를 통째로 삼켰고, 더 먹을 것을 찾다가 기름 장수도 삼켜 버렸습니다.
- 6 이 글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아침, 저녁, 밤’입니다.
- 7 마을 사람들의 말로 보아,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가 둘러메고 온 호랑이는 사람을 많이 잡아먹기로 유명한 호랑이였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임금님이 상을 내린 까닭을 알 수 있는 부분

‘임금님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호랑이를 죽인 두 사람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 8 각 그림에서 일어난 일이 언제 일어난 것인지 글에서 찾아보고 순서를 씁니다.

정답 친해지기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정리하기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는 호랑이 입을 열고 배 속에서 살아 나왔습니다.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는 호랑이를 둘러메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가 임금님께 상을 받았습니다.

- 9 이 이야기에는 까만 아기 양, 양치기 개 폴로, 양치기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 10 까만 아기 양은 하얀 털을 가진 다른 양들이 부러워서 양치기 할아버지께 하얀 털실로 스웨터를 떠 달라고 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까만 아기 양이 하얀 털을 갖고 싶었던 까닭

까만 아기 양은 폴로가 자기만 미워한다고 생각하여 ‘나도 눈처럼 하얀 털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 까?’라고 생각했습니다.

- 11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일이 일어난 차례를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글 ①은 인물에 대한 설명과 ‘아침에’ 까만 아기 양과 양치기 할아버지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나타난 부분입니다.

- 12 저녁이 되자, 양치기 할아버지는 폭풍우 속에 양들을 남겨 두고 온 것을 걱정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양치기 할아버지가 걱정한 것을 알 수 있는 부분

양치기 할아버지는 폭풍우 속에 남겨 둔 양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양들은 괜찮을까? 제멋대로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지? 그래도 내일이면 모두 만날 수 있겠지?”



두 부분에서 양치기 할아버지가 폭풍우 속에 양들을 남겨 두고 온 것을 걱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13 까만 아기 양은 불안해하는 양 떼를 동굴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채점 기준

‘동굴로 들어가게 했다.’라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4 불안해하는 양들을 근처 동굴로 옮기고 안심시키는 행동을 통해 성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15 그림을 보고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찾아봅니다.

정답 친해지기

그림의 내용 알아보기



어느 날, 검은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까만 아기 양이 쳐다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저녁이 되자, 폭풍우를 피해 오두막으로 들어 온 양치기 할아버지와 폴로의 모습이 나타난 그림입니다.



밤에 양들이 동굴 속에 있고 까만 아기 양이 동굴 밖에 서 있는 그림입니다.



이튿날 아침, 양치기 할아버지와 폴로가 하얀 눈밭에서 양들을 찾고 있는 그림입니다.

- 16 까만 아기 양의 까만 털 덕분에 까만 아기 양과 양 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 17 양치기 할아버지는 가을에 양털을 깎고, 까만 털실로 여러 가지 무늬를 넣어 양말, 목도리, 담요 등을 짜서 팔았습니다.

- 18 글 ⑤는 ‘점심때’와 ‘가을’에, 글 ⑥은 ‘겨울’에 일어난 일입니다.
- 19 글 ⑤~⑥에서 일이 일어난 차례를 살펴봅니다.
- 20 가족과 산에 가서 나무를 심은 일을 차례대로 정리한 내용으로, 그림 ㉠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21 반드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해 차례대로 정리합니다.

채점 기준 겪은 일을 크게 네 개의 장면으로 나누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넣고 차례대로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실천 학습

109쪽

22 ㉠ 23 (1) ㉠ 아침 (2) ㉠ 동생과 배드민턴을 칠 것이다. (3) ㉠ 오후 1시 (4) ㉠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을 것이다. (5) ㉠ 저녁 (6) ㉠ 숙제를 하고 일찍 잘 것이다.

- 22 ‘나의 미래 일기’를 쓸 때에는 ‘일이 일어날 때’를 하나씩 펼치며 일어날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을 써야 합니다.
- 23 일어날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을 차례대로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쓰고, 그 시간에 일어날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국어 활동

110쪽

- 1 ③ → ② → ①
- 2 (1) 어느 날 아침 (2) 점심때
- 3 (1) 오전 10시 (2) 오전 11시 (3) 가족과 점심 먹기 등 (4) 놀이터에서 놀기 등
- 4 낮에 학교에서 책을 읽었다. 저녁에 심부름을 했다. 등

- 1 그림의 내용을 생각하며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정리해 봅니다.
- 2 (1)과 (2)에는 일이 일어난 차례가 드러나게 ‘어느 날 아침’과 ‘점심때’라는 차례를 나타내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 3 ‘오전 10시’, ‘오전 11시’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쓰고, 점심시간과 오후 3시에 태희가 겪은 일을 씁니다.

- 4 남자아이가 ‘낮’과 ‘저녁’에 겪은 일을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해 씁니다.

정답 친해지기 남자아이가 ‘낮’과 ‘저녁’에 겪은 일

그림에서 남자아이는 ‘낮’에는 교실에서 책을 읽고 있고, ‘저녁’에는 먹을 것을 사서 어딘가를 가고 있습니다.

정리 학습

111쪽

- ① ㉠ ② ㉠ ③ 배 ④ 밤
⑤ 가을

단원 평가

112~114쪽

- 1 ④ 2 ⑤ 3 차례대로
- 4 시간을 나타내는 말 5 호랑이 배 속
- 6 밤 → 이튿날 아침 → 점심때
- 7 밤에 호랑이 배 속에서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가 만났다. 등 8 ㉠ 9 ⑤ 10 ⑤
- 11 ㉠ 눈보라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 12 ①, ②, ④ 13 ㉠ → ㉠ → ㉠
- 14 이튿날 아침 → 점심때
- 15 이튿날 아침, 할아버지는 서둘러 양들을 찾으러 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점심때 언덕 위에 까만 점처럼 보이는 까만 아기 양을 발견하고 양들도 찾았다. 등 16 ③ 17 ⑤
- 18 ㉠ → ㉠ → ㉠ 19 ③ 20 ③

- 1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난 일을 말할 때에는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말해야 합니다. 시를 낭송할 때는 일어난 일을 차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내용을 실감 나게 읽어야 합니다.
- 2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어리둥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자아이의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3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말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4 일이 일어난 차례를 나타내는 말 가운데 ‘아침, 어제, 밤’ 등과 같은 말을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 5 호랑이 배 속에서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가 만났습니다.
- 6 이 글은 ‘밤 → 이튿날 아침 → 점심때’의 순서로 일어난 일입니다.
- 7 글 ㉠에서 일어난 일을 ‘밤’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넣어 정리합니다.

채점 기준 밤에 호랑이 배 속에서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가 만났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8 ㉠ → ㉡ → ㉢ → ㉣의 차례대로 일이 일어났습니다.
- 9 폭풍우가 몰아치자 양치기 할아버지는 양들을 두고 폴로와 급히 오두막집을 향해 힘껏 달렸습니다.
- 10 폭풍우 속에 남겨진 양들은 몹시 불안해했습니다.
- 11 까만 아기 양은 눈보라를 피하기 위해서 양 떼를 동굴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채점 기준 눈보라를 피하기 위해서 까만 아기 양이 양 떼를 동굴로 데려갔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2 이 글의 내용은 ‘어느 날’, ‘저녁’,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 13 ㉠ → ㉡ → ㉢의 차례대로 일이 일어났습니다.
- 14 이튿날 아침에 일어난 일과 점심때 일어난 일이 나타난 글입니다.
- 15 글 ㉠의 ‘이튿날 아침’과 글 ㉡의 ‘점심때’ 일어난 일을 정리해서 씁니다.

채점 기준 ‘이튿날 아침’과 ‘점심때’ 일어난 일을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넣어 정리하여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6 제시된 그림은 ③ → ② → ① → ④의 순서로 일이 일어났습니다.
- 17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할 때 친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18 그림에서 여자아이가 아침, 낮, 저녁에 한 일을 살펴보고, 그 차례대로 일어난 일을 정리합니다.
- 19 점심을 먹는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고 ‘~에는’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골라 씁니다.
- 20 ‘공원’은 장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서술형·논술형 단원 평가

115쪽

- 1 아침에 언니들은 궁전에 갈 준비를 했어. 오후에 신데렐라는 호박 마차를 타고 궁전에 갈 수 있었어. 밤 열두 시가 되자 신데렐라는 궁전 밖으로 급하게 뛰기 시작했어. 등
- 2 (1) 호랑이가 소금 장수를 삼켰다. 등 (2) 호랑이가 기름 장수도 삼켰다. 등 (3) 호랑이 배 속에서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가 만났다. 등
- 3 양치기 할아버지는 양말, 목도리, 담요, 스웨터에 여러 가지 무늬를 넣었다. 등
- 4 할아버지는 생김새나 색깔이 모두 다른 특별한 양 떼를 갖게 되었다. 등
- 5 예 아침에 가족과 같이 밥을 먹었다. 점심에는 아버지와 같이 산에 올라갔다. 그리고 산에서 김밥과 라면을 먹었다. 네 시에는 등산을 마치고 외할머니 댁에 갔다. 외할머니 댁에서 저녁을 먹고 이모와 함께 놀다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 1 ‘아침, 오후, 밤 열두 시’에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다시 정리합니다.

채점 기준 반드시 제시된 답과 같은 순서로 이야기를 써야 정답으로 합니다.

- 2 각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 일어난 일을 씁니다.

채점 기준 (1)에는 호랑이가 소금 장수를 삼켰다는 내용을, (2)에는 호랑이가 기름 장수를 삼켰다는 내용을, (3)에는 호랑이 배 속에서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가 만났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글 ㉡를 보면 양치기 할아버지가 까만 털실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양말, 목도리, 담요, 스웨터에 까만 털실로 여러 가지 무늬를 넣었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글 ㉡에서 겨울에 일어난 일을 살펴봅니다.

채점 기준 할아버지가 까만 양, 하얀 양, 하얀 바탕에 까만 무늬가 있는 얼룩 양이 사이좋게 어우러진 양 떼를 가졌다는 내용을 써어도 정답으로 합니다.

- 5 기억에 남는 일을 떠올려 정리해 봅니다.

채점 기준 반드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쓰고,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써야 정답으로 합니다.

7 친구들에게 알려요

핵심 확인 문제

119쪽

- 1 (1) ○ 2 ○ 3 (1) 까닭 (2) 궁금해
4 ×

준비 학습

120~121쪽

- 1 (1) ㉠ (2) ㉡ (3) ㉢ (4) ㉣ 2 민수
3 ㉠ 4 ㉡, ㉢

- 1 각각의 그림에서 친구들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 2 민수는 자신이 잃어버린 모자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3 민수가 자신이 잃어버린 모자가 오리가 그려진 노란색 모자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지아가 더 쉽게 물건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민수가 잃어버린 모자

민수가 잃어버린 모자는 오리가 그려진 노란색 모자라고 했습니다. 분실물 보관함에서 ○표한 모자가 민수의 모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4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면 그 물건의 색깔과 모양 등을 자세히 말해야 합니다.

기본 학습

122~125쪽

- 5 ⑤ 6 ② 7 ①, ②, ⑤
8 민속 박물관에서 본 옛날 전화기는 위쪽이 좁은 과자 상자 모양이고 까만색입니다. 그리고 전화기 가운데에는 손으로 돌릴 수 있는 동그란 장치가 있습니다. 이 동그란 장치는 전화를 걸 때 사용합니다.
9 ② 10 (1) ㉠ 인형 (2) ㉡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11 ③
12 제목 13 ㉡, ㉢, ㉣
14 구름에, 구름은, 구름이 15 ○
16 ㉡, ㉢, ㉣, ㉤ 17 (1) ㉡ [지브로] (2) ㉢ [떠러진] (3) ㉣ [이베] (4) ㉤ [강무레]
18 ②

- 5 요즘과 다른 물건을 설명하는 글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글의 제목을 보고 알 수 있는 것

글의 제목을 보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 6 옛날 텔레비전은 화면이 평평하지 않고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 7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 생각해야 할 과정에는 ①, ②, ⑤가 있습니다.
- 8 ‘민속 박물관에서~있습니다.’는 전화기의 모양, ‘이 동그란~사용합니다.’는 사용 방법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요즘 전화기와 달라요」의 주요 내용

모양	• 위쪽이 좁은 과자 상자 모양입니다. • 까만색입니다. • 전화기 가운데에는 손가락으로 돌릴 수 있는 동그란 장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	동그란 장치는 전화를 걸 때 사용합니다.

- 9 주변의 물건을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 물건을 직접 만들어 볼 필요는 없습니다.
- 10 설명하고 싶은 물건과 그 물건을 설명하고 싶은 까닭을 씁니다.

채점 기준

(1)에는 다른 친구들이 잘 모르는 물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 잃어버린 물건, 새롭게 알게 된 물건 가운데 하나를 떠올려 쓰고, (2)에는 그 물건을 설명하고 싶은 까닭을 자세하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1 설명하고 싶은 물건의 색깔과 모양, 그 물건의 쓰임과 크기를 생각하며 그림을 그립니다.
- 12 두 친구는 물건을 설명하는 글의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설명하는 글의 제목 정하기

남자아이는 잃어버린 연필을 찾기 위해서 「연필을 찾습니다」로, 여자아이는 수영할 때 필요한 물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영할 때 필요한 물건」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 13 설명하는 글을 읽을 친구의 이름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 14 ‘구름과’, ‘구름도’, ‘구름보다’는 글자와 같게 소리 납니다.

정답
친해지기

날말의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 보기

구름+이	▶	구름이	▶	[구르미]	
구름+은	▶	구름은	▶	[구르문]	
구름+에	▶	구름에	▶	[구르메]	

- 15 ‘구름을’에서 받침 ‘ㄹ’이 뒤에 오는 ‘ㅇ’을 만나면 뒷말 첫소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구르믈]이라고 소리가 납니다.
- 16 ‘집으로, 떨어진, 입에, 강물에’는 받침이 뒷말 첫 소리가 되는 날말입니다.
- 17 제시된 답과 같이 소리가 납니다.
- 18 ‘마음도’는 글자와 같게 소리 나는 날말입니다.

오답 피하기

‘생일’은 [생이른], ‘목요일’은 [모교일], ‘부모님의’는 [부모니의], ‘할아버지’는 [하라버지]로 소리 납니다.

실천 학습

126쪽

19 ③, ④ 20 ①

- 19 2에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 자신만의 발명 공책을 만들 때 들어갈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자신만의 발명 공책에 들어갈 내용

발명하고 싶은 물건의 이름, 발명하려는 까닭, 물건의 색깔, 모양, 쓰임, 크기 등과 같은 물건의 특징을 씁니다.

- 20 자신만의 발명 공책이므로 친구와 비슷한 내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떠올린 내용으로 써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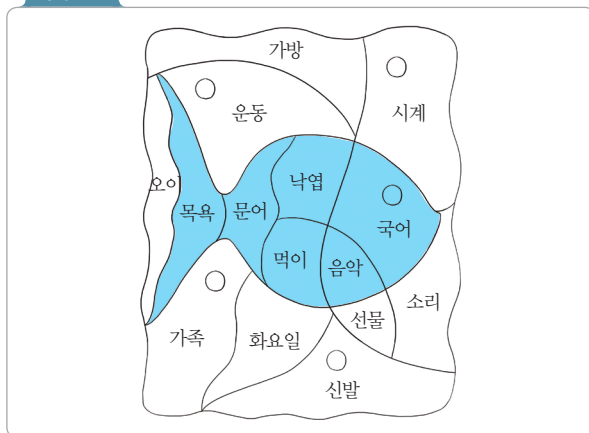
국어 활동

127~128쪽

- 1 (1) ㉠ (2) ㉡ (3) ㉢ (4) ㉣
- 2 (1) ㉢ (2) ㉠
- 3 풀이 예시 답안 참고, 물고기
- 4 (1) ㉡ (2) ㉠, ㉢, ㉣ (3) ㉠, ㉣

- 1 설명하는 물건의 특징을 잘 살펴보고 해당하는 물건을 그림에서 찾아봅니다. (1)은 ‘풍선’, (2)는 ‘아이스크림’, (3)은 ‘모자’, (4)는 ‘쓰레기통’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 2 (1)은 소중한 물건(모자)을 소개하기 위해, (2)는 잃어버린 물건(필통)을 찾기 위해 설명하는 상황입니다.
- 3 ‘목욕’은 [모곡], ‘문어’는 [무네], ‘낙엽’은 [나곶], ‘먹이’는 [머기], ‘음악’은 [으막], ‘국어’는 [구거]로 읽습니다.

예시 답안



- 4 밑줄 그은 글자를 소리 내어 읽어 봅니다.

정답 친해지기 받침이 뒷말 첫소리가 되는 날말

- | | |
|--------|---------------|
| (1) 문장 | ㉡ 동물원 [동무원] |
| | ㉠ 목이 [모기] |
| (2) 문장 | ㉢ 기린을 [기리늘] |
| | ㉡ 길어지는 [기러지느] |
| (3) 문장 | ㉠ 졸음을 [조르물] |
| | ㉣ 웃음이 [우스미] |

정리 학습

129쪽

- 1 소중한 2 옛날 텔레비전 3 모양
- 4 이베 5 기를

단원 평가

130~132쪽

1 ① 2 (1) ○ 3 ②

4 잃어버린 모자를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이다. 등

5 옛날 텔레비전, 옛날 라디오 6 ⑤

7 (1) 동그란 (2) 선 8 옛날 전화기

9 요즘 전화기와 옛날 전화기가 다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등 10 ①, ③, ⑤

11 도현 12 ③ 13 ②

14 풀이 예시 답안 참고 15 ③, ④ 16 고깃덩이

17 ③ 18 ④

19 (1) 가족 (2) 함께 (3) 동무원

20 예 나는 물을 시원하게 해 주는 냉장 빨대를 만들 거야.

1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꿈 인형에 대해 설명하는 상황입니다.

2 (1)은 새로 알게 된 물건을 설명하는 상황입니다.

오답 피하기

(2)는 잃어버린 물건(실내화)을 설명하는 상황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3 지아는 노란색에 오리가 그려진 민수의 모자를 찾고 있습니다.

4 민수는 잃어버린 모자가 노란색이고 오리가 그려져 있다고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채점 기준

‘민수가 모자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물건의 색깔, 모양을 자세히 말했기 때문이다.’와 같은 내용을 썼어도 정답으로 합니다.

5 옛날 텔레비전과 옛날 라디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6 옛날 물건들이 요즘 사용하는 물건과 많이 달라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7 글의 마지막 부분에 옛날 라디오의 사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8 여자아이는 옛날 전화기를 설명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 요즘 전화기와 옛날 전화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설명하려는 내용에 대해 알 수 있다.’를 썼어도 정답으로 합니다.

10 옛날 전화기의 특징은 ①, ③, ⑤입니다.

오답 피하기

②: 손바닥 크기만 하다는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④: 옛날 전화기의 가운데에는 손가락으로 돌릴 수 있는 동그란 장치가 있습니다.

11 설명하고 싶은 물건의 색깔과 모양, 쓰임, 크기를 생각하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12 제목을 보고 다른 사람이 글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제목을 써야 합니다.

오답 피하기

글의 제목은 처음에 정해도 되고 글을 다 쓴 뒤에 정해도 됩니다.

13 설명하려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글의 제목을 정하도록 합니다. 수영할 때 필요한 물건을 설명하는 글을 쓴다고 했으므로 ② ‘수영할 때 필요한 물건’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합니다.

14 ‘풍선’에 대한 설명이므로 그림에서 둥글고 노란색 풍선을 찾아봅니다.

예시 답안



15 ‘구름과, 구름도, 구름보다’는 글자와 같게 소리 나고, ‘구름이’는 [구르미]로, ‘구름은’은 [구르문]으로 소리 납니다.

16 욕심 많은 개는 집으로 가는 길에 떨어진 고깃덩이를 보았고 그것을 물고 통나무 다리를 건넜습니다.

17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른 개가 고깃덩이를 물고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18 ‘입에[이베], 집으로[지브로], 떨어진[떠러진], 강물에[강무레]’로 소리 납니다.

19 ‘가족, 함께’는 글자와 같게 소리 나고, ‘동무원’은 [동무원]으로 소리 납니다.

20 발명하고 싶은 물건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씁니다.

채점 기준

자신만의 발명 공책이므로 내가 발명하고 싶은 물건에 대하여 잘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서술형·논술형 단원 평가

133쪽

- 1 민수는 잃어버린 모자의 색깔, 모양을 자세히 설명했고, 서은이는 어떤 모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등
- 2 요즘 텔레비전과 다른 점, 옛날 텔레비전의 모양과 사용 방법을 알 수 있다. 등
- 3 (1) 예 지우개를 찾습니다 (2) 예 잃어버린 지우개를 찾습니다. 제 지우개는 파란색이고 새것입니다. 지우개 밑에 이름이 적혀 있어서 제 지우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4 받침 ‘ㅂ’이 뒤에 오는 ‘ㅇ’을 만나 자연스럽게 이어져 [지브로]라고 소리가 난다. 등
- 5 풀이 예시 답안 참고

- 1 민수의 설명과 서은이의 설명을 비교해 봅니다.

채점 기준 민수는 물건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했고, 서은이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2 옛날 텔레비전을 설명하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채점 기준 제시된 답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보기의 내용의 잘 드러나게 씁니다.

채점 기준 (1)에는 설명하려는 내용이 잘 드러나는 제목을 썼고, (2)에는 설명하고 싶은 까닭과 물건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집으로’는 받침이 뒷말 첫소리에 이어서 나는 낱말입니다.

채점 기준 제시된 답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발명하고 싶은 물건을 떠올려 씁니다.

예시 답안

(1) 예 이수민의 발명 공책

제가 발명하고 싶은 물건은 (2) 예 내 몸에 꼭 맞는 의자입니다.

(3) 예 자리가 바뀔 때마다 높이가 안 맞는 의자가 있어서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발명하고 싶습니다.

이 의자 옆의 초록색 단추를 누르면 내 몸에 맞게 높이가 자동으로 맞추어집니다.

채점 기준 (1)에는 자신의 이름, (2)에는 발명하고 싶은 물건의 이름, (3)에는 그 물건의 특징을 자세하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8 마음을 짐작해요

핵심 확인 문제

137쪽

- 1 경험 2 인물의 나이 3 ○
4 시간

준비 학습

138~139쪽

- 1 (1) ㉠ (2) ㉡
2 (1) 예 설레는 마음 (2) 예 신나는 마음 / 즐거운 마음 3 ㉡, ㉢ 4 소영, 동우

- 1 그림 가와 나 의 상황과 인물의 표정을 살펴봅니다.

정답 친해지기 그림 가, 나에서 알 수 있는 인물의 마음



반가운 마음

미안한 마음

- 2 각 상황에서 느끼는 마음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3 글쓴이는 신발이 벗겨졌을 때 ㉡, ㉢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 4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신발이 벗겨져서 매우 당황스럽고 신발을 주워야 할지 망설이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기본 학습

140~145쪽

- 5 ㉡, ㉢ 6 예 내가 재둥이라면 상진이가 텃밭에 들어가기 전에 말할 것 같다. 7 ㉡, ㉢
8 ㉠, ㉡ 9 ㉢, ㉣ 10 ㉤
11 ㉡ → ㉢ → ㉣ 12 ㉢ 13 ㉠, ㉡
14 (1) ㉠ (2) ㉢ (3) ㉡ (4) ㉣
15 (1) 속상한 마음 (2) 긴장되는 마음 (3) 쓴 약의 맛을 느끼고 싶지 않은 마음 (4) 즐거운 마음
16 ㉠, ㉡

5 재동이는 학교 뒤뜰 텃밭에 있는 상추에 물을 주다가 상진이가 텃밭에 들어가 상추를 밟고 축구공을 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상진이에게 텃밭에 들어가 상추를 밟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었습니다.

6 재동이가 겪은 일과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보거나 자신이라면 어떻게 할지 떠올리며 자유롭게 씁니다.

채점 기준 자신이 상추가 잘 자라기를 바라며 물을 주고 있는 재동이라면 텃밭의 상추를 밟고 축구공을 가져가려는 상진이를 보고 어떻게 했을지 떠올려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7 ㉠은 글쓴이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말, ㉡은 글쓴이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행동이 나타난 부분입니다.

8 이 글에서 재동이의 말과 행동, 재동이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 직접 드러난 부분을 보면 상추를 아끼는 마음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재동이의 마음 짐작하기

• 재동이의 말과 행동

말	“상진아, 상추도 마음이 있다는 거 알아?”
---	--------------------------

→ 상추도 밟히면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동	우유갑에 물을 더 떠다가 상추에 부어 주었다.
----	---------------------------

→ 상진이의 밭에 밟혔던 상추가 안타까워서 물을 더 주었습니다.

• 재동이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 직접 드러난 부분

상추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재동이의 마음	상추를 아끼는 마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	----------------------------

9 글쓴이의 마음을 짐작하며 글을 읽으면 글쓴이가 쓴 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글쓴이의 마음이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10 소영이는 현관에 세워 놓은 자전거를 보고 자전거 타기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11 현관에 세워 놓은 자전거를 보고 소영이는 자전거 타기 연습을하기로 했습니다. 힘들어도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계속 연습하였고 결국 혼자 자전거 타기에 성공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소영이가 겪은 일을 차례대로 정리하기

	현관에 세워 놓은 자전거를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자전거 타기를 연습했습니다.
	혼자 자전거 타기에 성공했습니다.

12 ㉢은 소영이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13 힘들었지만 자전거 타기를 성공했기 때문에 기쁘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14 ‘아침, 오전 10시, 점심때, 오후 3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정답 친해지기 다미가 겪은 일을 차례대로 정리하기

	
아침에 다미는 배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오전 10시에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점심때 죽을 먹은 뒤 쓴 물약을 먹었습니다.	오후 3시에 몸이 나아져서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 15 상황에 따라 다미의 마음이 어땠는지 찾아봅시다.
 16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해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이야기합니다.

실천 학습

146쪽

17 예 가 → 다 → 라 → 나

18 예 아침에 철민이는 도시락을 가지고 집을 나섰다. 친구들과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렜다. → 예 공원에서 여진이와 정수를 만났다. 점심때가 되어 함께 도시락을 먹으니 무척 즐거웠다. → 예 오후 2시에 연못으로 가서 금붕어들을 보았다. 금붕어들이 놀라서 흩어지는 것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 예 오후 4시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을 찾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렸다.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 17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생각하여 순서를 정합니다.
 18 내용을 상상하여 이야기를 씁니다.

채점 기준 각 장면에 해당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썼고,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남자아이의 마음이 잘 드러나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국어 활동

147~148쪽

- 1 (1) ㉠ (2) ㉡ (3) ㉢ 2 지수, 도훈
 3 ㉢ 4 ㉢ 5 ㉠, ㉡
 6 (1) 3 (2) 1 (3) 2

- 1 ★은 글쓴이의 상황, ◆은 글쓴이의 말이나 행동, ▲은 글쓴이의 마음을 드러낸 부분입니다.
 2 이 글은 별을 무서워하여 일어난 일을 쓴 일기입니다.
 3 복도에 별이 들어와서 글쓴이가 무서운 마음에 화장실도 못 가고 있다가 친구들을 따라서 간 내용이 담긴 일기입니다.
 4 이 글에는 물을 아껴서 사용하자는 글쓴이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5 글쓴이는 '이를 닦을 때나 세수할 때 물 받아 쓰기'와 '욕조에서 물놀이하지 않기'를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 6 그림에 해당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찾으며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해 봅시다.

정답 친해지기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정리하기

		
유치원에 다닐 때	여덟 살 때	2학년 때

정리 학습

149쪽

- 1 예 당황했을 / 속상했을 2 상추
 3 물 4 소중히 5 아프고
 6 예 긴장되는

단원 평가

150~152쪽

- 1 ㉠ 2 학교에서 달리기할 때 일어난 일이다.
 3 예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신발이 벗겨져서 당황했을 것이다. 4 ㉢ 5 ㉡
 6 상추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7 ㉠, ㉡ 8 (1) ○ 9 ㉡ 10 ㉡
 11 ㉡ 12 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다가 결국 한 시간 만에 풀었던 것처럼 글쓰기도 자전거를 혼자 탈 수 있게 되어 기뻐할 것이다.
 13 물 14 배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렸기 때문이다. 등 15 (1) 아침 (2) 오전 10시
 16 ㉡ 17 예 나도 갑자기 배가 아파서 쉬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
 18 유치원에 다닐 때, 여덟 살 때, 2학년 때
 19 예 아침 → 오전 11시 → 점심때 → 오후 4시
 20 예 아침에 철민이는 도시락을 가지고 집을 나섰다.

- 1 친한 친구를 우연히 만나면 반가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2 학교에서 달리기를 할 때 일어난 일을 쓴 글입니다.
 3 신발이 벗겨진 글쓴이는 당황스럽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채점 기준 '당황했을 것이다.', '속상했을 것이다.', '슬펐을 것이다.' 등과 같이 글쓴이의 상황에 알맞은 마음을 떠올려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상진이는 텃밭으로 날아온 축구공을 찾으려고 성큼성큼 텃밭으로 들어갔습니다.
- 5 글쓴이는 상진이가 텃밭에 들어간 것을 보고 상진이에게 텃밭에 들어가 상추를 밟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었습니다.
- 6 ‘상추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상추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글쓴이의 마음이 직접 드러난 부분입니다.
- 7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말과 행동을 통해 글쓴이가 상추를 아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8 별을 무서워하는 글쓴이의 마음을 잘 표현한 내용은 (1)입니다.
- 9 열심히 노력한 결과, 혼자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 10 글쓴이는 자전거 타는 방법을 빨리 배우고 싶은 마음에 힘들어도 쉬지 않고 열심히 페달을 밟았습니다.
- 11 혼자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 글쓴이의 뿌듯한 마음을 직접 드러낸 표현은 ㉔입니다.
- 12 혼자 어떤 일을 해냈던 경험을 떠올려 글쓴이의 마음을 짐작해 봅니다.

채점 기준 어려웠던 문제를 풀었거나 무언가를 노력해서 성공했던 경험을 떠올려 쓰고,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3 글의 마지막 부분으로 보아, 글쓴이는 물을 아껴 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 14 글쓴이는 배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려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 15 글쓴이는 ‘아침’에 몸이 아파서 ‘오전 10시’에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 16 글쓴이는 진찰을 받을 때 주사를 맞을까 봐 긴장되고 걱정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 17 아팠던 경험을 떠올리며 글쓴이의 마음이 어땠을지 헤아려 봅니다.

채점 기준 아팠던 경험을 떠올려서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를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8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쓴 글입니다. ‘유치원에 다닐 때 → 여덟 살 때 → 2학년 때’ 차례로 있었던 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 19 이야기의 순서에 맞게 시간을 정합니다.

- 20 그림 ㉠가 처음에 나오므로 어떤 내용으로 시작할지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도시락을 챙겨서 집을 나서는 상황에 맞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이야기를 꾸며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서술형·논술형 단원 평가

153쪽

- 1 ㉠ 친구가 아끼는 연필을 부러뜨린 경험이 있다. 그때 친구에게 미안하고 친구가 화를 낼까 봐 걱정이 되었다.
- 2 상추가 상진이 밟는 것을 보고 속이 상했기 때문이다. 등
- 3 혼자 자전거 타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 성취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등
- 4 아침에 글쓴이는 배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렸고, 그때 글쓴이는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 등
- 5 ㉡ 철민이는 12시에 공원에서 여진이와 정수를 만나 함께 도시락을 먹었다.

- 1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그때 느꼈던 마음을 씁니다.

채점 기준 친구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고장 냈던 경험을 떠올려 그때의 마음과 함께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2 글쓴이가 상추를 대하는 행동을 보고 글쓴이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상추가 상진이의 밟는 것을 보고 속이 상했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힘들어도 끈기 있게 노력한 결과 혼자 자전거 타기에 성공한 글쓴이의 마음을 짐작해 봅니다.

채점 기준 혼자 자전거 타기에 성공하여 성취감을 느끼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아침에 글쓴이에게 일어난 일을 살펴봅니다.

채점 기준 아침에 배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렸다는 내용을 쓰고 그때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친구들과 공원에서 도시락을 먹는 그림이므로 그에 알맞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점심때’, ‘12시에’ 등과 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쓰고 친구들과 공원에서 도시락을 먹었다는 내용이 드러나게 이야기를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9 생각을 생생하게 나타내요

핵심 확인 문제

157쪽

- 1 꾸며 주는 말 2 (2) ○
3 글을 쓴 장소 4 ×

준비 학습

158쪽

- 1 나 2 (1) 주룩주룩 (2) 노란 (3) 붉은
(4) 후드득 3 ㉔

- 1 글 ㉔보다 글 나가 비 내리는 느낌이 실감 나게 느껴지고 장화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2 글 나에서 꾸며 주는 말을 찾아 씁니다.

정답
친해지기

글 나 의 꾸며 주는 말과 꾸며 주는 말을 사용하여 좋은 점

- ‘주룩주룩, 붉은, 후드득’과 같은 말을 써서 비가 내리는 모습이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 ‘노란’과 같은 말을 써서 장화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 3 꾸며 주는 말을 사용하면 느낌을 실감 나게 표현할 수 있고, 내 생각을 정확하고 더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본 학습

159~165쪽

- 4 (1) 동그란 (2) 튼튼한 5 ⑤
6 예 아이들이 신나게 물놀이를 한다.
7 예 푸른 8 ②
9 예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았다. / 주말 농장에서 즐겁게 감자를 캐다.
10 예 숲속의 곤충에 대한 글이라고 생각했다.
11 수컷 사슴벌레 12 ② 13 (2) ○
14 ④, ⑤ 15 ⑤ 16 ②, ⑤ 17 ①
18 예 장기려 선생님은 아픈 사람들을 열심히 치료합니다. 19 ③ 20 ③
21 ④ 22 가난하고 병든 사람
23 예 저도 장기려 선생님처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4 각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생각한 다음 그 생각을 잘 나타내는 꾸며 주는 말을 골라 봅니다.
5 구름이 높이 떠 있다고 생각한 까닭을 말한 것은 ⑤입니다.
6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나 수영장의 모습 등을 ‘푸른, 신나게, 알록달록한’이라는 꾸며 주는 말을 넣어 문장으로 씁니다.
7 나무의 모양이나 색깔 등의 특징을 생생하고 실감 나게 나타낼 수 있는 꾸며 주는 말을 찾아봅니다. ‘푸른’, ‘높은’, ‘커다란’ 등과 같은 내용을 쓸 수 있습니다.
8 ②의 문장에는 꾸며 주는 말이 없습니다.

오답 피하기

- ① 폴짝폴짝: 작은 것이 자주 세차고 가볍게 뛰어오르는 모양.
③ 동실동실: 물체가 공중이나 물 위에 가볍게 떠서 잇따라 움직이는 모양.
④ 귀여운: 예쁘고 곱거나 또는 애교가 있어서 사랑스러운.
⑤ 즐겁게: 마음에 거슬림이 없이 흐뭇하고 기쁘게.

- 9 주말에 있었던 일 가운데에서 기억에 남는 일을 떠올려 꾸며 주는 말을 사용해 씁니다.

채점 기준

반드시 꾸며 주는 말을 넣어 썼어야 정답으로 합니다.

- 10 「숲속의 멋쟁이 곤충」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어떤 글이라고 짐작했는지 씁니다.

채점 기준

숲속의 곤충을 설명하는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1 이 글은 수컷 사슴벌레의 여러 가지 특징(생김새, 먹이, 생활)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12 수컷 사슴벌레는 큰턱을 가지고 있는데, 등이 아니라 큰턱 옆에 더듬이가 있습니다.
13 띄어 쓴 부분마다 띄어 읽으면 오히려 의미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문장을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 읽되, ‘누가(무엇이)’ 다음에 조금 쉬어 읽어야 뜻이 잘 드러납니다. ∨는 조금 쉬어 읽는 것을 나타내는 켄표이고, ∷는 ∨보다 조금 더 쉬어 읽는 것을 나타내는 겹켄표입니다.

- 14 이 글에는 장기려 선생님과 ‘나’(기오), 엄마, 옆 침대 아줌마가 등장합니다.
- 15 기오는 엄마가 일 끝내고 밤늦게 올 때까지 병원 안을 돌아다니다 장기려 선생님이 쉬지 않고 환자들을 보러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 16 장기려 선생님은 입원비가 밀려 퇴원하지 못 하는 환자를 사무장님 몰래 뒷문으로 내보내 주었고, 월급 받은 것을 거지에게 통째로 주었습니다.
- 17 장기려 선생님은 밤늦게까지 환자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 18 글에 나타난 장기려 선생님의 행동을 바탕으로 알맞은 꾸며 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장기려 선생님’, ‘사람들’, ‘치료합니다’를 꾸며 주는 말을 넣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9 ‘바보 의사’는 월급을 많이 주면서 모셔 가려는 병원도 많은데, 없는 사람들을 돌보려고 사서 고생하는 장기려 선생님의 모습이 잘 드러난 별명입니다.
- 20 기오가 장기려 선생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더 자세하게 꾸며 주는 말은 ‘몰래’입니다.
- 21 장기려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 22 장기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기오는 장기려 선생님처럼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돕는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 23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먼저 정리해 봅니다.

채점 기준 장기려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을 꾸며 주는 말을 넣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실천 학습

166쪽

24 태훈 25 ①, ③, ⑤

- 24 ‘찰랑찰랑’은 ‘가득 찬 물 등이 잔물결을 이루며 자꾸 넘칠 듯 흔들리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뜻합니다.
- 25 ‘맛있는’은 ‘볶음밥’을 꾸며 주고, ‘빨리’는 ‘챙겼다’를 꾸며 주며, ‘콩닥콩닥’은 ‘뛰었다’를 꾸며 줍니다.

국어 활동

167~168쪽

- 1 (1) 예 엉금엉금 (2) 예 모락모락 (3) 예 꼭 (4) ① 예 귀여운 ② 예 폴짝폴짝 (5) ① 예 굳센 ② 예 산산이
- 2 (1) 푸른 (2) 노란 (3) 맑은
- 3 (1) 예 학교에서 공을 멀리 쳤다. (2) 예 두 팔로 힘차게 수영을 했다. (3) 예 아름다운 그림을 보니 기분이 좋아진다. (4) 예 밤하늘에 작은 별이 반짝인다.
- 4 (1) ㉠ (2) ㉡ (3) ㉢ (4) ㉣
- 5 다른 사람의 생각이 옳을 때도 있어. 등
- 6 (1) ㉢ (2) ㉡ 7 (1) ㉢ (2) ㉠ (3) ㉡

- 1 대상과 어울리는 꾸며 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정답 천해지기 (1)~(5)의 빈칸에 들어갈 꾸며 주는 말

(1)	예 천천히, 꾸물꾸물
(2)	예 하얗게, 뿌옇게
(3)	예 불끈, 짹
(4)	① 예 작은, 초록 ② 예 펄쩍펄쩍, 높이
(5)	① 예 단단한, 검은 ② 예 하얗게, 철썩철썩

- 2 소나무와 은행잎, 하늘의 색깔에 어울리는 말을 찾아봅니다.
- 3 낱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합니다.

정답 천해지기 (1)~(4)의 꾸며 주는 말의 뜻

멀리	한 시점이나 지점에서 시간이나 거리가 몹시 떨어져 있는 상태로.
힘차게	힘이 있고 씩씩하게.
아름다운	모양·소리·빛깔 등이 마음에 즐겁고 기쁜 느낌을 줄 만큼 예쁘고 고운.
작은	길이, 넓이, 부피 등이 비교 대상이나 보통보다 덜한.

- 4 그림을 보고 어울리는 말을 찾아 기호를 씁니다.
- 5 서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 주장하는 해와 달에게 해 줄 수 있는 말을 떠올려 봅니다.
- 6 제시된 그림과 낱말에서 느낄 수 있는 느낌을 생각하며 알맞은 뜻을 골라 기호를 씁니다.
- 7 문장에서 밑줄 그은 낱말이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생각해서 해당하는 뜻과 선으로 잇습니다.

정리 학습

169쪽

- 1 예 신나게 2 예 귀여운 3 제목
4 특징 5 문장 6 √

단원 평가

170~172쪽

- 1 ㉠ 문장에는 ‘노란’이라는 말을 썼다. 등
2 ③, ④ 3 ② 4 ④
5 (1) 예 귀여운 (2) 예 높은 (3) 예 신나게
6 ② 7 ①, ③ 8 참나무 진
9 ②, ⑤ 10 예 수컷 사슴벌레의 먹이가 나뭇진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수컷 사슴벌레가 힘겨루
기를 하는 까닭을 알게 되었다.
11 (1) √ (2) √ (3) √ 12 ⑤
13 바보 의사 14 예 따뜻한
15 ⑤ 16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기 때문이다. 등 17 (1) 아픈 (2) 열심히
18 (3) ○ 19 예 학교에 늦을까 봐 가슴이 콩닥콩
닥 뛰었다. 20 ㉠

- 1 ㉠ 문장에는 ‘장화’를 꾸며 주는 말인 ‘노란’이라
는 말이 있습니다.

채점 기준 ‘㉠ 문장에 꾸며 주는 말을 썼다.’, ‘㉠ 문장에
장화를 꾸며 주는 ‘노란’이라는 말을 썼다.’ 등과 같은 내
용을 썼어도 정답으로 합니다.

- 2 꾸며 주는 말을 사용하면 내 생각을 정확하고 생
생하게 나타낼 수 있고, 느낌을 실감 나게 표현
할 수 있습니다.
3 수박의 색깔이나 모양, 크기 등의 특징을 떠올려
봤을 때 ② ‘커다란’이 가장 적절합니다.
4 ‘알록달록한’은 색깔이나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
므로 물놀이를 하는 것을 꾸며 주는 말로 알맞지
않습니다.
5 ‘새, 나무, 노래한다’를 더 생생하고 자세하게 표
현할 수 있는 꾸며 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6 ‘주렁주렁’은 열매 등이 많이 달려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답 피하기

①의 ‘영금영금’, ③의 ‘찐득찐득’, ④의 ‘꺄꺄’, ⑤
의 ‘주룩주룩’은 문장에 어울리지 않는 꾸며 주는 말
입니다.

- 7 수컷 사슴벌레의 특징 중 먹이와 생활을 설명하
고 있습니다.
8 수컷 사슴벌레는 나뭇진을 먹고 사는데 참나무
진을 아주 좋아합니다.
9 수컷 사슴벌레는 자신을 드러내어 보이거나 먹
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수컷 사슴벌레와 힘
겨루기를 합니다.
10 수컷 사슴벌레의 먹이, 생활에 대한 내용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여 씁니다.

채점 기준 수컷 사슴벌레의 먹이나 힘겨루기를 하는 모
습에 대하여 새롭게 안 사실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1 ‘누가(무엇이)’ 다음에 조금 쉬어 읽고(√), 문장
과 문장 사이는 √보다 조금 더 길게 쉬어 읽습
니다.(∞) 또 ‘누가(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의 앞
부분이 길면 한 번 더 쉬어 읽습니다.(√)
12 거지가 장기려 선생님에게 받은 수표를 보고 은
행에서는 거지가 훔친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3 다른 사람들을 돌본다고 사서 고생을 하기 때문
에 사람들은 장기려 선생님을 ‘바보 의사’라고 불
렀습니다.
14 장기려 선생님의 행동을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알맞은 꾸며 주는 말을 떠올립니다.
15 장기려 선생님은 의사가 없는 마을에 가서 병원
이 없어서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16 장기려 선생님은 병원이 없어서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의사가 없는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17 의사가 없는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장
기려 선생님의 모습에 어울리는 꾸며 주는 말을
찾아봅니다.
18 서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다투는 해와 달에게
(3)과 같은 말을 해 줘야 합니다.
19 준비물을 챙긴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알맞은 꾸며
주는 말을 넣어 문장으로 만들어 봅니다.

채점 기준 준비물을 챙긴 뒤에 일어날 일을 꾸며 주는
말을 넣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20 ‘단단한’과 ‘번쩍’은 나비가 날아가는 것을 꾸며
주는 말로 알맞지 않습니다.

서술형·논술형 단원 평가

173쪽

- 1 (1) 주룩주룩, 노란, 굵은, 후드득
(2) 예 내 생각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 2 예 친구가 커다란 그물로 즐겁게 물고기를 잡는다.
- 3 수컷 사슴벌레는 큰턱을 가지고 있다. / 수컷 사슴벌레는 나뭇진을 먹고 산다. 등
- 4 한 문장을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 읽는다. / '누가(무엇이)' 다음에 조금 쉬어 읽는다. / 문장과 문장 사이는 V보다 조금 더 길게 쉬어 읽는다. / '.,' 뒤에는 ≪를 하고 조금 더 쉬어 읽는다. 등
- 5 예 나도 장기려 선생님같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 1 꾸며 주는 말과 꾸며 주는 말을 사용하면 좋은 점을 모두 씁니다.

채점 기준 (1)에는 '주룩주룩, 노란, 굵은, 후드득' 네 가지를 모두 쓰고, (2)에는 '내 생각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느낌을 실감 나게 표현할 수 있다.', '내 생각을 더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 중 한 가지를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2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친구의 모습을 생생하고 실감 나게 나타내려면 어떤 꾸며 주는 말을 넣어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친구', '그물', '물고기', '잡는다'를 꾸며 주는 말을 넣어 문장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수컷 사슴벌레의 특징 가운데 생김새와 먹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채점 기준 수컷 사슴벌레는 큰턱을 가지고 있고, 나뭇진을 먹고 산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V는 조금 쉬어 읽는 것을 나타내는 쉼표이고, ≪는 V보다 조금 더 쉬어 읽어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겹쉼표입니다.

채점 기준 제시된 답 중에서 하나를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글을 읽고 느낀 점을 꾸며 주는 말을 넣어 씁니다.

채점 기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돕는 의사인 장기려 선생님 이야기를 읽고 느낀 점을 꾸며 주는 말을 넣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10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핵심 확인 문제

177쪽

- 1 (1) ○ 2 듣는 사람 3 비슷한 4 ×

준비 학습

178~179쪽

- 1 예 동생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 아직 혼자서 동화책을 다 읽지 못하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 힘을 얻을 것 같다. 2 그림 3 ㉔
- 4 (1) ㉔ (2) ㉔ 5 ㉔

- 1 “넌 할 수 있어.”라는 기분이 좋아지는 말을 들려주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 보고, 왜 그 말을 들려주고 싶은지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넌 할 수 있어.”라는 기분이 좋아지는 말을 들려주고 싶은 사람과 그 까닭을 알맞게 떠올려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2 남자아이가 실수로 여자아이의 팔을 쳐서 여자아이의 그림을 망친 상황입니다.
- 3 그림을 망쳐서 속상하고 화가 났을 여자아이의 기분을 생각하며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여자아이의 기분을 생각하며 할 말

내 잘못으로 친구가 속상하고 화가 났을 때에는 “정말 미안해!”라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 4 대화 ㉔에서는 서로 화를 내며 친구에게 잘못을 미루었고, 대화 ㉔에서는 먼저 사과하고 친구가 괜찮은지 살펴봐 주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대화 ㉔와 ㉔에서 서로 다른 점

- 대화 ㉔: 서로 화를 내며 친구에게 잘못을 미루고 있어 친구들은 화가 났을 것입니다.
- 대화 ㉔: 먼저 사과하고 친구가 괜찮은지 살펴봐 주어 친구들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 5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며 말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듣는 사람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전할 수 있고, 즐겁게 대화할 수 있으며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기본 학습

180~185쪽

6 속상했을 것이다. 등 7 기분 8 ⑤

9 ㉠ 10 ④ 11 (1) 다 (2) 가 (3) 나

12 ④ 13 (1) 예 과자를 먹고 나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어때? (2) 예 도서관에서는 책 읽는 사람들이 있으니 조용히 하자.

14 ③ 15 지석이가 몰고 가던 공이 민지가 찬 공과 부딪치는 바람에 민지가 공에 걸려서 등

16 ③, ④ 17 ② 18 (1) “지석아, 괜찮아. 실수로 그런 건데, 뭘.” (2) 예 미안해하는 지석이를 배려하는 마음 19 풀이 예시 답안 참고

- 6 재희는 줄넘기가 잘 안되어 속상했을 것이고, 힘이 빠지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 7 현수가 재희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말했을 때와 재희의 기분을 생각하며 말했을 때 재희의 기분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봅시다.
- 8 재희의 상황을 생각하며 재희를 위하는 마음을 담아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 9 여자아이는 동생과 함께 오느라 늦었다고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 10 넘어진 친구의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보고, 친구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말합니다.
- 11 각 그림의 상황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봅시다.
- 12 여자아이가 짜증 내듯이 말했기 때문에 친구들은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 13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며 여자아이가 한 말을 고운 말로 바꾸어 써 봅시다.

채점 기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자는 내용과 도서관에서 조용히 하자는 내용을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며 고운 말로 바꾸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4 무거운 책을 혼자 들고 가는 친구의 기분을 생각하며 해 줄 수 있는 말은 “많이 무겁지? 나랑 나눠라.” 등입니다.
- 15 공놀이 중 지석이가 몰고 가던 공이 민지가 찬 공에 부딪치는 바람에 민지가 공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 16 지석이는 넘어진 민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17 지석이는 자신이 찬 공에 민지가 걸려 넘어지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18 민지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지석이의 기분을 생각하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19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떠올려 보고, 자신이 그 사람이라면 기분이 어떠할지 생각해 일기를 씁니다.

예시 답안

예 시소 / 예 나는 학교를 마치고 지연이와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다. 그런데 지연이가 점심을 늦게 먹는 바람에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도착했다. 나는 화가 많이 났다. 지연이는 늦어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나는 잠깐 망설였지만 괜찮다고 했다. 지연이는 사과를 받아 주어 정말 고맙다고 했다. 나도 마음이 많이 풀려 지연이와 재미있게 시소를 탔다.

채점 기준

가족이나 친구와 있었던 일을 떠올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며 일기를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실천 학습

186쪽

20 고운 말 21 지수에게 고마운 기분이 들 것 같다. 등 22 (1) 3 (2) 2 (3) 1

23 예 놀이터에서 친구와 그네를 먼저 타겠다고 다툰 적이 있다. 다음부터는 “먼저 타.”라고 고운 말을 쓸 것이다.

- 20 지수는 앞으로 줄넘기를 잘 못하는 친구에게 “잘할 수 있어. 힘내!”라는 고운 말을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21 지수가 고운 말을 해 준다면 지수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 앞으로 더 열심히 줄넘기를 연습하고 싶을 것입니다.
- 22 다짐 쪽지를 쓰기 위해서는 자신이 고운 말을 쓰지 않았던 상황을 떠올리고, 써야 할 고운 말을 생각한 후 다짐하는 날짜와 이름을 씁니다.
- 23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고, 무엇을 다짐할지 생각해 봅시다.

채점 기준

자신이 다짐할 내용을 적절히 떠올려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국어 활동

187~188쪽

- 1 ③ 2 (1) ○ (3) ○ (4) ○
 3 (1) 예 내가 도와줄게. 같이 들어 줄까?
 (2) 예 힘내! 조금 더 높이 뛰어 봐.
 4 지혜 5 ③ 6 예 다녀왔습니다.
 7 예 사랑해요. / 정말 멋져요. / 축하해요!
 8 (1) 예 조용히 이야기하면 좋겠어.
 (2) 예 운동장에서 공놀이하면 좋겠어.

- 1 친구들에게 “조용히 해!”라는 말보다 “얘들아, 안녕?”이라는 말을 하면 친구들의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2 자신의 기분보다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며 대화해야 합니다.
 3 친구가 무거운 책을 들고 있는 상황과 줄넘기가 잘 안되는 상황에서 친구의 기분을 생각하며 할 수 있는 말을 써 봅니다.
 4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친구의 기분을 생각하며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어울립니다.

정답 친해지기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며 말하기

- 일이 일어난 상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 상대의 기분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 듣는 사람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 담긴 말이면 듣는 사람의 기분이 좋아집니다.

- 5 “까불지 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6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다녀왔습니다.”라는 말을 하면 부모님의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7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을 떠올려 씁니다.
 8 친구들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며 말하지 말고, “하지 마!”라고 하는 것보다 “~에서 하는 게 좋겠어.”라고 방법을 이야기해 주면 좋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며 고운 말로 바꾸어 말하기

- 친구들에게 말할 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 친구에게 “하지 마!”라고 하는 것보다 “~에서 하는 게 좋겠어.”라고 방법을 이야기해 주면 좋습니다.

정리 학습

189쪽

- ① 미안해 ② 신중 ③ 진심 ④ 기분
 ⑤ 다짐

단원 평가

190~192쪽

- 1 년 할 수 있어 2 나 3 ③
 4 ①, ③ 5 ② 6 ⑤ 7 나연
 8 ① 9 ⑤ 10 ⑤
 11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등 12 ⑤
 13 예 축하해! 태권도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다니 정말 멋져! 14 ③ 15 예 걸어 다니면 좋겠어.
 16 ② 17 ① 18 배려하는 등
 19 예 내가 먼저 왔다고 계속 화를 내서 연우도 괜히 화가 더 났을 것 같다. 20 ②

- 1 이 노래는 “년 할 수 있어.”라는 기분이 좋아지는 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2 대화 ④는 먼저 사과하고 친구가 괜찮은지 살펴봐 주는 내용입니다.
 3 친구가 괜찮은지 살펴봐 주어 고마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4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며 말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듣는 사람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전할 수 있고, 즐겁게 대화할 수 있어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5 재희는 줄넘기가 잘 안되어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6 재희는 현수가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알아주어 마음이 조금 풀렸을 것이고, 현수에게 고마웠을 것입니다.
 7 듣는 사람의 기분과 상황을 먼저 생각해 신중히 말해야 합니다.
 8 남자아이는 걱정해 주는 친구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9 무거운 짐을 힘겹게 나르는 친구의 기분을 생각하며 도와주겠다는 내용의 말을 하는 것이 어울립니다.
 10 도서관에서 친구와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그림입니다.

- 11 여자아이가 짜증 내는 말투로 크게 말해서 친구들은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 12 도서관에서 떠드는 친구의 기분을 생각하며 도서관에서 조용히 하자는 말을 어떻게 고운 말로 전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 13 어린이 태권도 대회에서 상을 받은 친구의 기분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말해야 합니다.

채점 기준 어린이 태권도 대회에서 상을 받은 친구의 기분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하는 말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4 “까불지 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 15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말고 듣는 사람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 16 민지의 얼굴이 빨갱게 변한 것으로 보아 민지는 부끄럽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 17 넘어진 민지의 기분을 생각하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지석이가 민지의 기분을 생각하며 한 말과 그때의 기분

말	“공을 몰고 가느라 너를 보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기분	예 민지에게 미안한 마음

- 18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지석이를 배려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민지가 지석이의 기분을 생각하며 한 말과 그때의 기분

말	“괜찮아. 실수로 그런 건데, 뭘.”
기분	예 미안해하는 지석이를 배려하는 마음

- 19 자신이 친구의 입장이 되어 기분이 어떠할지 생각해 봅시다.

채점 기준 서로 그네를 먼저 타겠다고 다투는 상황에서 친구의 기분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20 지수는 다음부터는 줄넘기를 잘 못하는 친구에게 고운 말을 쓰겠다고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서술형·논술형 단원 평가

193쪽

- 1 (1) 예 그림을 망쳐서 속상하고 화가 날 것이다.
(2) 예 재희야, 정말 미안해!
- 2 예 자신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다.
- 3 예 그러다가 다치겠어. 천천히 걸어 다녀.
- 4 “공을 몰고 가느라 너를 보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 5 예 나의 다짐 / 예 나는 어머니께서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 주셨는데 먹기 싫은 반찬이 있다고 반찬 투정을 자주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께서 식사를 차리시는 것을 돕고,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운 말을 쓰겠습니다. / 나 자신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할 것을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 예 김비상

- 1 그림을 망쳐 속상할 재희에게 현수는 진심을 담아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점 기준 (1)에는 그림을 망쳐 속상할 재희의 기분을, (2)에는 재희의 기분을 생각하며 사과하는 말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2 여자아이는 동생과 함께 오느라 늦었다고 자신이 늦게 온 까닭을 설명해 남자아이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채점 기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복도에서 뛰지 말자는 내용을 어떻게 고운 말로 전할지 생각해 봅시다.

채점 기준 복도에서 뛰지 말자는 내용을 고운 말로 바꾸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지석이는 넘어진 ‘나’의 기분을 생각하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채점 기준 “공을 몰고 가느라 너를 보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를 정확하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자신이 고운 말을 쓰지 않았던 상황을 떠올려 보고, 그때에 써야 할 고운 말을 생각해 다짐 쪽지를 씁니다.

채점 기준 자신이 고운 말을 쓰지 않았던 상황과 그때에 써야 할 고운 말을 알맞게 떠올려 다짐 쪽지를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11 상상의 날개를 펴요

핵심 확인 문제

197쪽

- 1 (1) ○ (3) ○ 2 예 우는 듯한 목소리
3 × 4 특징

준비 학습

198~201쪽

- 1 팽이가 두 개로 늘어났다. 등 2 ①, ②
3 (2) ○ 4 (1) ② (2) ① 5 ③
6 ④ 7 (1) ○ 8 ①, ②, ③

- 1 농사꾼이 독에 팽이를 넣자 팽이가 두 개로 늘어났습니다.
- 2 신기한 독 이야기를 들은 원님은 독이 자꾸 탐이 났고, 농사꾼과 부자 영감에게서 신기한 독을 빼앗기 위해 독을 나라에 바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3 부자 영감은 부자이므로 비싼 비단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어울립니다.
- 4 농사꾼이 팽이로 열심히 밭을 일구는 행동과 농사꾼과 부자 영감이 실망한 표정으로 힘없이 털레털레 걷는 행동을 몸짓으로 나타낸 것을 찾습니다.
- 5 이 이야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고, 인물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읽어 봅니다.
- 6 독에서 나온 원님의 아버지들이 서로 먹살을 잡고 치고받고 하던 중 신기한 독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 7 원님의 아버지가 까치발을 하고 고개를 독 안으로 들이밀고 있는 행동을 몸짓으로 나타낸 것을 찾습니다.
- 8 이야기를 읽을 때 인물의 모습을 떠올려 보고,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며 읽으면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평소에 이야기를 읽는 태도 확인하기

- 인물의 모습을 떠올리며 읽는다.
-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며 읽는다.
- 이야기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글로 쓴다.

기본 학습

202~212쪽

- 9 ④ 10 ① 11 ⑤

12 “아저씨, 수박 드세요.”

13 아저씨와 수박을 나누어 먹고 싶었을 것이다. / 아저씨와 친해지고 싶었을 것이다. 등

14 수박을 가져다준 꼬마에게 아무것도 해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등 15 ④, ⑤

16 ④ → ③ → ② → ①

17 사람들에게 딸기잼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 등

18 아픈 동물들의 이를 치료해 주는 일 등

19 ⑤ 20 빨리 치료받고 싶은 마음 등

21 우는 듯한 목소리

22 ③ 23 ② 24 ③ 25 ④

26 내일 여우를 어떻게 물리쳐야 할지 걱정되는 마음일 것이다. 등 27 ⑤ 28 ④

29 드소토 부부는 여우가 자신들을 잡아먹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밤에 계획을 세운 뒤에 잠이 들었다. 등

30 긴장되지만 자신 있는 목소리로 읽는다. 등

31 ⑤ 32 ㉠, ㉡

33 (1) 예 『소가 된 게으름뱅이』 (2) 예 책의 주인공이 밥을 먹고 게으름만 피우다가 소로 변한 부분 (3) 예 할 일을 미루지 않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 9 아저씨가 동네 딸기를 모두 사 버려서 동네 사람들 들은 딸기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 10 딸기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게 된 동네 사람들은 아저씨를 미워하며 욕심쟁이라고 욕했습니다.
- 11 자기만 두고 수박을 먹는 마을 사람들을 보고 아저씨는 심통이 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 12 꼬마는 동네 사람들이 나누어 먹던 수박을 아저씨에게도 드리기를 위해 아저씨를 찾아와 “아저씨, 수박 드세요.”라고 말했습니다.
- 13 수박을 들고 아저씨를 찾아온 꼬마의 말과 행동을 통해 아저씨와 수박을 나누어 먹고 싶은 꼬마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아저씨께 수박을 드리기를 위해 찾아온 꼬마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수박을 나누어 먹고 싶은 꼬마의 마음을 짐작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4 아저씨는 수박을 가져다준 꼬마에게 아무것도 해 주지 못한 것과 혼자만 딸기를 먹은 것이 미안해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 15 다른 사람들을 위해 딸기잼을 만들어 나누어 준 아저씨는 쑥스러움과 뿌듯함을 느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 16 그림을 보고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해 순서대로 번호를 씁니다.

정답 친해지기 「욕심쟁이 딸기 아저씨」에서 일어난 일

- ① 딸기 아저씨는 딸기가 먹고 싶어서 온 동네 딸기를 사 버렸습니다.
- ② 사람들이 모여 수박을 나누어 먹으면서 아저씨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동네 꼬마가 아저씨에게 수박을 가져다주었고 아저씨는 동네 꼬마가 딸기를 좋아하는 줄 알면서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 뒤 아저씨는 잠을 못 자며 고민을 했습니다.
- ③ 다음 날 아침, 아저씨는 딸기를 공터로 날라 딸기잼을 만들었습니다.
- ④ 아저씨는 동네 사람들에게 딸기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 17 이야기의 상황과 아저씨의 행동을 통해 아저씨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이야기 속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

- 이야기의 상황이 어떠한지 살펴봅니다.
-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살펴봅니다.

- 18 드소토 부부는 아픈 동물들의 이를 치료해 주는 일을 합니다.
- 19 드소토 선생님은 쥐라서 쥐에게 위험한 동물은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
- 20 여우는 엉엉 울면서 이가 아프니 도와 달라고 말했으므로 드소토 선생님이 빨리 이를 치료해 주면 좋겠다는 마음일 것입니다.
- 21 여우는 이가 아파 엉엉 울며 말했으므로 우는 듯한 목소리와 이가 아프니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읽는 것이 어울립니다.

정답 친해지기 인물의 마음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읽기

- 이야기 속 인물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 인물의 마음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소리 내어 읽습니다.

- 22 드소토 부부는 이가 아픈 여우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이러한 드소토 부부의 마음에 어울리는 목소리는 여우를 걱정하며 도와주려는 따뜻한 목소리입니다.
- 23 여우는 드소토 선생님을 잡아먹으면 맛있겠다고 잠꼬대를 했습니다.
- 24 여우의 잠꼬대를 들은 드소토 선생님은 여우가 자신을 잡아먹을까 봐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 25 드소토 부부는 여우가 자신들을 잡아먹지 못하게 할 방법을 찾느라고 밤늦게까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 26 걱정이 되어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하는 드소토 부부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내일 여우를 어떻게 물리쳐야 할지 걱정하는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이야기의 상황과 드소토 부부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드소토 부부의 걱정되는 마음을 짐작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27 드소토 선생님이 장난치지 말라고 호되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화가 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28 여우는 특별 치료 때문에 입을 벌릴 수 없게 되자 얼떨떨해서 드소토 부부를 멍하니 바라보다 계단을 비틀비틀 내려갔습니다.
- 29 그림을 보고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순서대로 떠올려 봅니다.

정답 친해지기 「치과 의사 드소토 선생님」에서 일어난 일

- ① 이가 아픈 여우가 드소토 선생님을 찾아옴.
- ② 드소토 부부가 열심히 여우의 이를 치료해 줌.
- ③ 드소토 부부는 여우가 자신들을 잡아먹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밤에 계획을 세운 뒤에 잠이 듭.
- ④ 드소토 선생님이 여우에게 특별 치료를 해 줌.

- 30 드소토 선생님이 세운 계획에 따라 여우가 특별 치료를 받았다고 말하길 바라는 마음이므로 긴장되지만 자신 있는 목소리로 읽는 것이 어울립니다.
- 31 ‘나’는 보성이라는 친구가 『토끼와 자라』를 재미있게 읽는 것을 보고 『토끼와 자라』를 읽게 되었습니다.

32 이야기를 읽고 글을 쓸 때에는 이야기의 내용과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씁니다. ㉠은 이야기의 내용을 쓴 부분이고, ㉡과 ㉢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쓴 부분입니다.

33 이야기의 내용이 잘 드러나게 쓰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표현해 씁니다.

채점 기준 이야기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과 그 부분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실천 학습

213~214쪽

34 (1) ㉠ 콩쥐 (2) ㉡ 콩쥐의 착한 마음씨가 좋기 때문이다.

35 ㉢ 콩쥐는 힘든 집안일을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

36 미운 오리 새끼 37 ㉡, ㉢, ㉣

38 ㉡, ㉣, ㉤

39 ㉢ ‘흐흐흐’라고 소리를 내며 웃고, 조용한 목소리로 읽는다. 40 ㉤

34 자신이 읽은 이야기 속 인물 가운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을 떠올려 보고, 인물을 골라 그 인물의 어떤 점이 기억에 남는지 생각해 봅니다.

35 기억에 남는 이야기 속 인물을 고르고 그 인물의 특징을 씁니다.

채점 기준 기억에 남는 인물의 모습과 성격을 떠올려 인물의 특징을 잘 정리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36 이 인물 카드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물은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37 인물 카드를 만들 때에는 인물의 이름을 쓰고 인물의 모습을 그린 후 인물의 특징을 씁니다.

38 이 장면에는 여우, 드소토 부인, 드소토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39 ‘흐흐흐’라고 소리를 내며 웃고, 혼잣말을 하고 있으므로 조용한 목소리로 읽는 것이 어울립니다.

40 역할놀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고, 역할에 어울리는 표정과 몸짓을 하면서 역할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읽어야 합니다.

국어 활동

215쪽

1 ㉣

2 점잖은 표정 등

3 (1) 두려운 마음 등 (2) 기쁜 마음 등

1 큰 먹이를 구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어린 일개미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2 젊은 개미들에게 조용히 들으라 하면서 매미의 입장을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늙은 개미는 엄하면서도 점잖은 표정일 것입니다.

3 개미들이 하는 말을 들은 매미의 마음을 짐작해 봅니다.

정리 학습

216~217쪽

1 심술궂은 2 행동 3 미안한 4 이

5 느낌 6 웃는

단원 평가

218~220쪽

1 ㉡

2 ㉢ 부자 영감은 비싼 비단옷을 입고 있을 것 같다.

3 ㉠

4 ㉡

5 (1) ㉡ (2) ㉠

6 ㉢

7 ㉢, ㉤

8 ㉣

9 ㉢

10 이

11 ㉡

12 (1) 우는 듯한 목소리로 읽는다. 등 (2) 걱정되는 목소리로 읽는다. 등 13 ㉣

14 ㉢ 화가 난 목소리로 읽는다.

15 『토끼와 자라』

16 ㉠

17 내용

18 인물 카드

19 조용한

20 ㉠

1 농사꾼은 밭을 일구다가 큰 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2 부자이고 욕심이 많은 부자 영감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3 그림을 보고 어떤 행동을 몸짓으로 나타낸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4 동네 꼬마는 아저씨에게 수박을 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5 꼬마는 아저씨와 함께 수박을 나누어 먹고 싶은 마음에 수박을 가지고 아저씨를 찾아왔고, 아저씨는 딸기를 좋아한다는 꼬마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 6 아저씨는 꼬마에게 딸기를 나누어 주지 않은 미안함에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 7 이야기의 상황,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8 큰 먹이를 발견한 것이 자랑스러워 우쭐대는 표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 9 개미들이 자신을 잡아먹을까 봐 매미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 10 여우는 이가 아파서 치과 의사 드소토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 11 여우를 본 드소토 부부는 여우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 빨리 치료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 12 이가 아파 우는 여우의 말은 우는 듯한 목소리로, 딱한 여우를 치료해 주고 싶은 드소토 선생님의 말은 여우가 걱정되는 목소리로 읽는 것이 어울립니다.
- 13 여우는 드소토 선생님을 잡아먹고 싶은 마음에 드소토 선생님이 입안으로 들어가자 입을 탁 다무는 장난을 쳤습니다.
- 14 장난을 치는 여우에게 화가 난 목소리로 읽는 것이 어울립니다.

채점 기준 장난치는 여우에게 화가 난 드소토 선생님의 마음에 어울리는 목소리를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5 『토끼와 자라』를 읽고 이야기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쓴 글입니다.
- 16 토끼는 자라에게 속아 용궁으로 가게 되었지만 꾀를 내어 육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 17 이야기의 내용을 쓴 부분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쓰기**

- 이야기의 내용이 잘 드러나게 씁니다.
-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해 씁니다.

- 18 인물의 이름과 모습, 특징을 쓴 인물 카드입니다.
- 19 여우는 혼잣말을 하고 있으므로 조용한 목소리가 어울립니다.
- 20 실감 나게 역할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역할에 어울리는 표정과 몸짓을 하며 역할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서술형·논술형 단원 평가

221쪽

- 1 예 까치발을 하고 고개를 아래로 쭈욱 들이미는 몸짓으로 표현한다.
- 2 예 다른 사람들을 위해 딸기잼을 만들어 나누어 준 뒤에 뿌듯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 3 예 긴장되지만 자신 있는 목소리가 어울린다.
- 4 책을 읽으며 자라의 말에 쉽게 속는 토끼의 모습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토끼가 어려움을 이겨 내는 모습이 재미있었다.
- 5 예 혼잣말로 조용히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어울린다.

- 1 독 안이 궁금해 까치발을 하고 독 안을 들여다보는 원님 아버지의 행동에 어울리는 몸짓을 떠올려 봅니다.

채점 기준 까치발을 하고 독 안을 들여다보는 원님 아버지의 행동을 몸짓으로 알맞게 나타내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2 동네 사람들에게 딸기잼을 나누어 준 뒤에 나누는 것의 즐거움을 깨달은 아저씨의 마음을 짐작해 봅니다.

채점 기준 동네 사람들에게 딸기잼을 나누어 준 뒤에 쉼스럽고 뿌듯한 아저씨의 마음을 짐작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드소토 선생님은 여우가 특별 치료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므로, 긴장되면서도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어울립니다.

채점 기준 여우가 특별 치료를 받겠다고 말하기를 바라는 드소토 선생님의 마음에 어울리는 목소리를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토끼와 자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쓴 부분을 찾아봅니다.

채점 기준 '책을 읽으며 자라의 말에 쉽게 속는 토끼의 모습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토끼가 어려움을 이겨 내는 모습이 재미있었다.' 부분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여우는 혼잣말을 하고 있으므로 조용히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읽는 것이 어울립니다.

채점 기준 조용히 혼잣말을 하는 여우의 모습에 어울리는 목소리를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1 시를 즐겨요

기본 단원 평가

2~3쪽

- 1 ⑤ 2 ㉠ 한 발짝 두 발짝 가다가 돌아보는
동작으로 표현하고 싶다. 3 ② 4 ⑤
5 으르렁 드르렁 / 드르르르 푸우- 6 ④
7 ㉠ 조마조마하다. 8 ③ 9 ⑤
10 동주

- 목소리의 크기와 빠르기를 바꾸어 가며 노래하는 느낌이 들도록 읽는 것이 좋습니다.
- 시의 내용을 행동으로 잘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한 발짝 / 두 발짝 가다가 / 또 돌아보고'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표현하기에 알맞은 행동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시 속 인물은 풀밭을 걸을 때 풀꽃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 시의 내용과 시 속 인물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를 '으르렁 드르렁 / 드르르르 푸우-'로 표현했습니다.
- 시의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하거나 시에 나타난 표현을 살펴보고, 시의 상황과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면 인물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시 속 인물의 마음 상상하기

- 장면을 생각하며 시를 읽어 봅니다.
- 시의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하고 생각이나 느낌을 말해 봅니다.
- 시에 나타난 표현을 보고 인물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 시의 상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 시 속 인물의 표정을 나타내어 봅니다.

- 숨바꼭질 놀이를 할 때에 숨어 있는 친구는 술래가 자신을 찾을까 봐 조마조마할 것입니다.
- 이 시에는 치과에 가서 이를 뺄 때에 무섭고 두려운 아이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 시 속 인물은 치과에 가서 이를 뽑고 있습니다.
- 시는 시의 분위기에 알맞게 표정과 목소리, 몸짓 등을 바꾸어 가며 낭송해야 합니다.

서술형 50% 실력 단원 평가

4~5쪽

- ①, ⑤
- ㉠ 시에서 줄이 바뀔 때마다 손뼉을 치고 싶다.
- ㉠ 아기 새는 발이 작아서 풀꽃을 밟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④
- ㉠ 아이가 조심조심 풀밭을 걷는 장면이 떠오른다. / 아이가 풀밭에 앉아 풀꽃을 자세히 살펴보는 장면이 떠오른다. 6 ④ 7 현선
- ⑤ 9 ㉠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면서 숨어 있을 때 술래가 나를 찾을까 봐 조마조마했다.
- 10 (1) ㉠ 딱지 따먹기 (2) ㉠ 딱지를 치는 행동을 표현하며 읽고 싶다.

- 이 시에는 친구와 다투고 난 뒤에 화가 난 마음과 친구와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 '한'이나 '두'와 같이 반복되는 말에서 손뼉을 칠 수도 있고, 재미있는 부분에서 발을 구를 수도 있습니다.

채점 기준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고 싶은 부분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아기 새는 발가락 사이가 벌어져 있어서 풀꽃을 피해 걷기가 더 편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채점 기준 시 속 아이의 마음을 파악하고 그 마음과 관련지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시 속 인물은 풀꽃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의 발이 아기 새 발이면 참 좋겠다고 했습니다.
- 이 시는 조심조심 풀밭을 걷는 아이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시입니다.

채점 기준 시의 내용과 어울리는 장면을 떠올려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시 속 아이는 생쥐처럼 살금살금 아버지의 양말을 벗겨 드리고 있습니다.
- 아버지의 양말을 조심스럽게 벗겨 드리는 아이의 행동을 통해 아버지께서 잠에서 깨시지 않고 폭 주무시기를 바라는 아이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 8 시 속 인물은 친구들과 딱지 따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 9 시 속 인물은 자신의 딱지를 다른 친구가 딸까 봐 조마조마해 하고 있습니다.

채점 기준 시 속 인물의 마음을 바르게 파악하고 비슷한 마음이 들었던 경험을 떠올려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시 속 아이의 마음

- 자신의 딱지를 다른 친구가 딸까 봐 조마조마해 하는 것 같습니다.
- 다른 친구가 딱지를 칠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 10 재미있게 읽었던 시를 떠올려 보고 시의 분위기를 살려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친구들 앞에서 낭송하고 싶은 시의 제목과 그 시를 낭송하는 방법을 모두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2 자신 있게 말해요

기본 단위 평가

6~7쪽

- 1 ③ 2 ④ 3 예 모둠별 발표를 할 때 대표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발표를 잘 마쳐서 뿌듯했다. 4 자신의 꿈 등 5 ③, ④
- 6 예 교실에서 지킬 점 말하기 7 ②, ④
- 8 ⑤ 9 ③, ⑤ 10 ④, ⑤

- 1 링링은 긴장해서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는 채 더듬더듬 발표를 끝내 버렸습니다.
- 2 링링은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무섭고 떨렸습니다.
- 3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해 본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그때의 기분과 함께 써 봅니다.

채점 기준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한 경험을 쓰고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그림 ①에서 선생님께서 다음 시간에는 자신의 꿈에 대해 발표해 볼 거라고 하셨습니다.
- 5 남자아이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며 말할 내용을 미리 생각하고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 6 교실에서 지킬 점 말하기 등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야 하는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 7 친구 ②와 ⑥은 발표하고 있는 친구를 바라보며 바른 자세로 듣고 있습니다.
- 8 동물 마을의 숲 한가운데에 넓은 찻길이 생겨서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이 끊겨 버렸습니다.
- 9 동물들의 고민을 파악하고 동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 10 책에서 인상 깊은 문장을 쓰고 책에서 기억나는 그림을 간단히 그려 친구들에게 소개할 책의 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술형 50% 실력 단위 평가

8~9쪽

- 1 ④ 2 ⑤
- 3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다. /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등
- 4 ⑤
- 5 예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 / 말할 내용을 미리 생각하고 말했다. 6 (2) ○
- 7 예 모둠 친구들이 모두 점박이 공룡을 좋아하니까, 점박이 모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 8 (1) 말할 내용 등 (2) 듣는 사람 등 9 ④, ⑤
- 10 예 나무를 심어서 고라니가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충분히 주면 좋겠습니다.

- 1 여자아이가 말끝을 흐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해서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의 말을 잘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 2 그림 ④의 여자아이는 분명한 목소리와 자신 있는 태도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 3 자신 있게 말하면 듣는 사람은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말하는 사람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자신 있게 말하면 좋은 점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남자아이는 책에서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할 내용을 찾아보기 위해서 도서관에 갔습니다.
- 5 그림 ④의 여자아이의 생각을 살펴봅니다. 남자아이는 말할 내용을 미리 생각하여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채점 기준 그림의 남자아이가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바른 자세로 발표하는 방법과 관련지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6 그림 ㉠과 ㉡는 모두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상황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야 하는 상황 ㉠

- 모둠 이름 정하기
- 교실에서 지킬 점 말하기
- 친구들 앞에서 자기소개하기
- 현장 체험학습 소감 발표하기

- 7 그림의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어울릴지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그림의 상황에 어울리는 말할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8 발표할 때에는 말할 내용을 미리 생각한 뒤에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해야 합니다. 또 허리를 펴고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해야 합니다.

채점 기준 발표를 잘했는지 확인할 때 생각할 점을 정확히 알고 (1)과 (2)에 모두 알맞은 말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9 고라니는 먹이를 구하러 갈 수 없게 되었다고 했고, 들고양이는 헤어진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 10 글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말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동물들의 고민을 파악하여 동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3 마음을 나누어요

기본 단원 평가

10~11쪽

- 1 ② 2 ② 3 ① 4 ③
5 ⑤ 6 ①
7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8 ④
9 (1) ㉠ (2) ㉡ (3) ㉢ 10 ④

- 1 별 ④는 눈물을 흘리고 있으므로 ‘슬프다’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오답 피하기

- ① 별 ③ ③ 별 ②
⑤ 별 ⑤

- 2 활짝 웃는 별 ②의 표정에는 ‘즐겁다’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 3 선생님의 말을 통해 테오에게 동생이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 4 에릭은 새 자전거를 선물받았을 때 행복하다고 했으므로 행복한 마음이 드는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 5 동생과 함께 놀 때에는 즐겁고 신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보충 자료

동생과 함께 놀아서 → 까닭
즐거워요. → 마음을 나타내는 말

- 6 아영이가 영미에게 방울토마토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을지 물어보았는데 영미가 공기놀이를 하면서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 7 ‘서운한’과 같이 아영이의 마음을 직접 나타내는 말이 있는 문장을 찾아봅니다.

채점 기준 글에서 아영이의 마음을 직접 나타낸 부분을 찾아 정확히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8 언제 서운한 마음이 드는지 생각해 봅니다.

- 9 인물의 표정과 동작을 살펴 인물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에서 인물은 눈물을 닦으며 울고 있고, (2)에서는 눈을 크게 뜨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있습니다. (3)에서는 눈을 감고 미소 짓고 있습니다.

- 10 친구가 아끼는 장난감을 빌려주면 고마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 1 ㉠ 2 예 눈을 감고 미소를 지을 것이다.
 3 ㉠
 4 예 착한 일을 하고 칭찬받았을 때 자랑스럽다.
 5 한영이, 두영이, 세영이 6 ㉠, ㉡
 7 예 마음을 직접 나타내는 말을 찾아본다. / 마음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그런 마음이 든 상황이나 까닭이 나타난 부분을 찾는다.
 8 가 9 예 저녁에 혼자 집에 있을 때
 10 예 이제 학교에서 너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슬퍼. 우리 자주 연락하자.

- 1 ㉠ 친구의 표정과 몸짓에는 '신나다'가 어울립니다.
 2 만족스러운 상황을 떠올려 자신은 그때 어떤 표정을 짓고 동작을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만족스러워요'를 표현할 수 있는 표정이나 몸짓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질투 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은 '샘나다'입니다.
 4 자신은 언제 자랑스러운 마음을 느끼는지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자랑스러운 마음이 드는 때를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방울토마토 삼 형제의 이름은 아영이의 '영' 자에 하나, 둘, 셋을 붙여 '한영이, 두영이, 세영이'로 확정되었습니다.
 6 아영이는 자신의 생각을 말할 차례가 되니까 긴장도 되고 부끄러웠다고 했습니다.
 7 인물의 마음을 직접 나타내는 말을 찾아보거나 그런 마음이 든 상황이나 까닭이 나타난 부분을 살펴보고, 인물의 표정이나 모습을 살펴보면 인물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이 글에서 아영이의 마음이 나타난 부분을 찾는 방법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8 인물의 표정을 통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인물의 표정에 어울리는 마음

- 가: 당황한 마음
 나: 무서운 마음

- 9 인물의 표정과 몸짓으로 보아 무서운 마음일 것입니다. 자신은 언제 무서운 마음이 드는지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무서운 마음이 드는 상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0 친구가 전학을 갈 때 어떤 마음이 들지 생각해 보고, 그 마음이 잘 드러나게 표현해 봅니다.

채점 기준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여 그림의 상황에 어울리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4 말놀이를 해요

기본 단원 평가

14~15쪽

- 1 ㉠ 2 ㉠ 3 콩지 따기 말놀이
 4 예 포근하면 엄마 품 5 (1) ○ 6 예 길
 7 ㉡ 8 꽃 가게 9 ㉡ 10 ㉣, ㉤

- 1 소리 내어 시를 읽으면 낱말의 소리와 뜻이 나뉘어 이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말랑말랑'해서 말냉이라고 지어졌습니다.
 3 비슷한 것을 떠올려서 말을 이어 가는 놀이는 콩지 따기 말놀이입니다.
 4 포근한 것을 떠올려 말놀이를 이어 봅니다.

채점 기준 포근한 특징을 가진 낱말을 넣어 콩지 따기 말놀이를 하는 방법에 맞게 '포근하면 ○○○'과 같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묻고 답하면서 말을 주고받는 놀이입니다.
 6 '줍다'와 관련된 낱말을 떠올려 봅니다.
 7 과일 가게에서 파는 물건을 생각해 봅니다.
 8 모두 꽃 가게에서 파는 물건입니다.
 9 말 덧붙이기 놀이를 할 때에는 새로운 말을 덧붙여야 합니다.
 10 고기만두와 김치만두는 음식의 재료에 따라, 찐만두와 군만두는 만드는 방법에 따라, 왕만두는 크기에 따라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서술형 50% 실력 **단원 평가**

16~17쪽

- 1 ④ 2 (1) 예 콩이 콩콩 튀어서
(2) 예 참 맛있어서 3 ①
4 (1) 예 과자 (2) 예 자연
5 예 빨가면 장미 / 장미는 예뻐 / 예쁜 것은 내 친구
6 ⑤ 7 예 다섯은 뭐니? / 손가락 다섯
8 (1) 예 사과 (2) 예 배 (3) 예 딸기 9 ⑤
10 예 삼각김밥, 모양이 삼각형이라서 삼각김밥이라고 지어졌을 것 같다. / 참치김밥, 참치를 재료로 사용하여 만들어서 참치김밥이라고 지어졌을 것 같다.

- 1 ‘쭉쭉 뽑아 쭉 나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 이 시에서 나물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다고 하는지 살펴보고 ‘콩나물’, ‘참나물’이라는 나물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을지 생각하여 봅니다.

채점 기준 ‘콩나물’과 ‘참나물’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을지 생각하여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같은 글자가 낱말의 어디에 있는지 살펴봅니다.
4 ㉠에는 ‘과’ 자로 시작하는 낱말을 쓰고, ㉡에는 ㉠ 낱말의 끝 글자로 시작하는 낱말을 씁니다.
5 콩지 따기 말놀이는 비슷한 것을 떠올려서 말을 이어 가는 놀이입니다.

채점 기준 콩지 따기 말놀이를 하는 방법을 알고 알맞게 바꾸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6 주고받는 말놀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⑤입니다.

오답 피하기

- ① 첫 글자로 말 잇기 놀이
② 콩지 따기 말놀이
③ 말 덧붙이기 놀이
④ 끝말잇기 놀이

- 7 ‘다섯은 뭐니?’와 숫자 다섯에 어울리는 낱말을 생각하여 주어진 말놀이와 같은 형식으로 씁니다.

채점 기준 주고받는 말놀이의 특징을 알고 이어질 말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8 과일 가게에서 파는 물건의 이름을 떠올려 봅니다.

채점 기준 과일 가게에서 파는 물건을 세 가지 모두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9 말 덧붙이기 놀이를 할 때에는 앞 친구의 말을 반복하고 새로운 말을 덧붙여야 합니다.
10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멸치김밥은 김밥 안에 들어간 재료에 따라 지어진 이름이고, 꼬마김밥은 크기로, 삼각김밥은 모양에 따라 지어진 이름입니다.

채점 기준 그림에 나타난 김밥 중 하나를 골라 그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을지 생각하여 이름과 어울리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5 낱말을 바르고 정확하게 써요

기본 단원 평가

18~19쪽

- 1 종우 2 ③ 3 (1) ㉠ (2) ㉡
4 예 학교 수업을 마치다.
5 (1) 김다 (2) 느리게 6 (1) ② (2) ①
7 ④ 8 (1) 한결 (2) 영양 선생님
9 영양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1반 김한결 이에요. 10 ⑤

- 1 남자아이는 선생님이 불러 주시는 소리만 듣고 그대로 써서 소리가 비슷한 ‘닫히고’와 ‘다치고’를 헷갈려하며 잘못 썼습니다.
2 ①과 ⑤는 ‘닫고’, ②는 ‘다치고’, ④는 ‘붙고’를 사용하는 때입니다.
3 ‘있다가’는 내 몸이 어딘가에 있는 것이고 ‘이따가’는 내가 잠시 시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4 ‘마치다’는 어떤 일을 끝내는 것을 뜻하는 낱말입니다.

채점 기준 ‘학교 수업을 마치다’, ‘방과 후 수업을 마치다’ 등과 같은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김다’는 떨어지거나 헤어진 곳에 다른 조각을 대거나 또는 그대로 꿰매다는 뜻이고, ‘느리다’는 어떤 동작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뜻입니다.

- 6 ①은 편지를 부치는 그림이고, ②는 생활 계획표를 벽에 붙이는 그림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붙이다'와 '부치다'의 뜻

붙이다	맞닿아 떨어지지 않게 하다.
부치다	편지나 물건 등을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방에게로 보내다.

- 7 '갔다'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의 뜻이고, '같다'는 '서로 다르지 않다.'의 뜻입니다.
- 8 한결이는 영양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 9 편지의 첫인사는 받을 사람과 전하고 싶은 말 사이에 들어갑니다. 편지를 받을 사람은 영양 선생님이요, 전하고 싶은 말은 '저희를 위해 ~ 정말 고맙습니다.'입니다.
- 10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쓸 때에는 상상의 이야기를 넣어 재미있게 꾸며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서술형 50% 실력 단원 평가

20~21쪽

1 다치고 2 예 발가락을 다치니 걷기 힘들다.

3 (1) ㉠ (2) ㉡ 4 ㉢

5 (1) 맞히고 → 마치고 (2) 거름 → 걸음

6 ㉤ 7 반찬을 잘 먹는다고 칭찬해 주시고, 날마다 맛있는 급식을 준비해 주셔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등

8 (1) 한결 올림 (2) 받을 사람이 웃어른이면 쓴 사람에 '○○ 올림'이라고 써야 하기 때문이다. 등

9 '받을 사람 → 첫인사 → 전하고 싶은 말 → 끝인사 → 쓴 날짜 → 쓴 사람'의 차례로 쓴다.

10 풀이 예시 답안 참고

- 1 여자아이의 말을 통해 남자아이가 '다치고'를 '다치고'로 잘못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2 몸의 어느 부분을 맞거나 부딪쳐 상처가 났을 때 사용하는 '다치다'를 넣어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채점 기준 '손가락을 다치니 밥을 먹기 불편하다.', '다리를 다치니 축구를 할 수 없다.' 등과 같이 '다치다'의 뜻을 바르게 알고 문장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을 뜻하며, '반듯이'는 '물건이 비틀어지지 않고 바르다.'를 뜻합니다.

- 4 '거름'은 농사지을 때 식물이 잘 자라라고 흙에 넣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5 소리가 비슷한 낱말의 뜻을 구분하여 알맞은 낱말을 씁니다.

오답 피하기

맞히다	목표를 겨냥한 지점에 맞게 하다.
마치다	어떤 일이 끝나다. 또는 하던 일을 다하여 끝나게 하다.
거름	농사지을 때 식물이 잘 자라라고 흙에 넣어 주는 것.
걸음	두 발을 번갈아 옮겨 놓는 동작.

- 6 ⑤의 '반드시'는 '반듯이'로 고쳐 써야 합니다.
- 7 한결이는 영양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채점 기준 제시된 답과 같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8 웃어른께 편지를 쓸 때에는 이름 뒤에 '올림'이라는 말을 씁니다.

채점 기준 (1)에는 '한결 올림'을 쓰고, (2)에는 받을 사람이 웃어른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9 편지를 쓸 때에는 차례에 맞게 써야 합니다.

채점 기준 제시된 답과 같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0 고마웠던 마음이나 함께하여 즐거웠던 마음이 잘 드러나게 씁니다.

예시 답안

예 사랑하는 친구 지민이에게
지민아, 안녕? 난 수현이야.

저번에 너와 같이 수학 숙제를 하면서 네가 어려운 내용을 잘 알려 준 덕분에 숙제도 잘 마칠 수 있었어. 엄마께서도 숙제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서 얼마나 기뻐는지 몰라. 다 네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나도 잘 알려 줄게.

우리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안녕.

2000년 00월 00일

너의 친구 수현이가

채점 기준 편지를 받을 사람을 생각하여 고마웠던 마음이 잘 드러나고 형식에 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6 차례대로 말해요

기본 단원 평가

22~23쪽

- 1 ⑤ 2 ①, ②, ⑤
 3 (1) 3 (2) 2 (3) 1 4 ④
 5 (1) 저녁 (2) 호랑이 배 속에서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가 만났다. 등 6 ①
 7 저녁, 밤 8 ㉠ → ㉡ → ㉢ 9 ③
 10 ③

- 1 여자아이가 이야기를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말하지 않아서 남자아이는 이상하게 생각하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 ‘밤 열두 시, 오후, 아침’이 차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3 여자아이의 말에서 일이 일어난 차례를 나타내는 말로 보아, ‘아침 → 오후 → 밤 열두 시’의 차례대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그림 나열하기



- 4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는 깜깜한 밤에 호랑이 배 속에서 만났습니다.
 5 글을 읽으며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찾고, 그때 일어난 일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봅니다.

채점 기준 (1)에는 ‘저녁’을 쓰고, (2)에는 호랑이 배 속에서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가 만났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6 까만 아기 양은 동굴에 가면 눈보라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양 떼를 동굴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7 글 ㉠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저녁’이고, 글 ㉡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밤’입니다.
 8 양치기 할아버지께서 양들을 걱정한 것은 저녁에 일어난 일이고, 양들이 불안해하자 까만 아기 양이 양 떼를 동굴로 들어가게 한 것은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 9 이 그림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오전 10시, 오전 11시, 점심시간, 오후 3시’입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해당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오후 3시’로, 이때 태희는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았습니다.
 10 있었던 일을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여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써야 합니다.

서술형 50% 실력 단원 평가

24~25쪽

- 1 ② 2 (1) 오후에 (2) 궁전 밖으로 급하게 뛰기 시작했다. 3 ④ 4 ⑤
 5 예 기름 장수와 소금 장수가 임금님께 상을 받았다. 6 (1) 이튿날 아침 (2) 예 할아버지는 언덕 위에 있는 까만 점을 보고 까만 아기 양과 양 떼를 찾을 수 있었다. 7 ② 8 ③
 9 예 오전 10시에 교실에서 찰흙으로 멋진 성을 만들었고 점심때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다.
 10 (1) 예 아침에는 (2) 예 11시에 (3) 예 저녁 7시에 집에 돌아와서 피자를 먹고 텔레비전을 봤으면 좋겠다.

- 1 여자아이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여 말했지만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말하지 않아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일이 일어난 차례에 맞게 여자아이의 말을 정리해 보고,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생각해 써 봅니다.

채점 기준 (1)에는 ‘오후에’를 쓰고, (2)에는 궁전 밖으로 급하게 뛰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펄쩍펄쩍’은 모양을 흉내 내는 말입니다.
 4 호랑이 배 속에서 살아 나온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의 모습을 나타낸 그림으로, 이튿날 아침에 일어난 일에 해당합니다.
 5 며칠 뒤 임금님까지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고, 임금님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호랑이를 죽인 두 사람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채점 기준 기름 장수와 소금 장수가 임금님께 상을 받았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6 글 ㉠과 ㉡ 모두 글의 가장 처음 부분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드러나 있습니다.

채점 기준 (1)에는 '이튿날 아침'을 쓰고, (2)에는 할아버지가 언덕 위에 있는 까만 점을 보고 까만 아기 양과 양떼를 찾을 수 있었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7 까만 아기 양을 팔았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8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먼저 말하면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말할 수 없어서 듣는 친구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9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여 자신이 겪은 일을 차례대로 정리하여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나타냅니다.

채점 기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넣어 자신이 겪은 일을 차례대로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0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그때 일어날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을 알맞게 씁니다.

채점 기준 (1)과 (2)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쓰고, (3)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일어날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7 친구들에게 알려요

기본 단위 평가

26~27쪽

- 1 ㉠ 2 ㉡ 3 예 교실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친구에게 설명한 적이 있다.
- 4 ㉠ 5 ㉡ 6 ㉢
- 7 자신의 모습이 강물에 비친 것 등 8 ㉠, ㉡, ㉣
- 9 (1) 동물원 (2) 졸음, 웃음 10 ㉠
- 1 그림 ㉠의 여자아이는 소중한 물건을, 그림 ㉡의 남자아이는 잃어버린 물건을, 그림 ㉢의 남자아이는 친구가 잘 모르는 물건을 설명하는 상황입니다.
- 2 친구가 잘 모르는 자동차 모양의 연필깎이에 대해 설명하는 상황은 그림 ㉢에 해당합니다.

- 3 자신의 소중한 물건이나 잃어버린 물건, 새로 알게 된 물건, 친구가 잘 모르는 물건 등을 설명해 보았던 경험을 떠올려 씁니다.

채점 기준 물건을 설명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옛날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요즘 텔레비전과 라디오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옛날 물건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 5 옛날 텔레비전은 네모 상자 모양입니다.
- 6 글을 읽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물건이나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 잃어버린 물건, 새로 알게 된 물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7 욕심 많은 개가 통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 8 '집으로'는 [지브로], '길에'는 [기레], '입에'는 [이베]로 소리 납니다.
- 9 받침이 뒷말 첫소리가 되는 낱말은 받침을 뒤에 오는 'ㅇ' 자리에 두고 자연스럽게 이어서 읽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1)과 (2)의 ○표를 한 낱말 발음하기

(1)의 '동물원'은 [동무원]으로, (2)의 '졸음'은 [조르물]로, '웃음'은 [우스미]로 소리 납니다.

- 10 의자의 가격에 대한 설명은 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서술형 50% 실력 단위 평가

28~29쪽

- 1 (1) 민수 (2) 예 잃어버린 모자를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이다. 2 ㉠ 3 ㉠, ㉣
- 4 예 전화기 가운데의 동그란 장치를 손가락으로 돌려 전화를 건다. / 요즘 전화기와 옛날 전화기는 모양이나 크기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도 다르다.
- 5 예 「요즘 전화기와 달라요」 6 도진, 수정
- 7 (1) 예 인형 (2) 예 인형이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을 궁금해할 것 같다. 그리고 인형의 크기와 나에게 인형이 소중한 까닭을 궁금해할 것 같다.
- 8 ㉠ 9 ㉡
- 10 (1) 내 몸에 꼭 맞는 의자 (2) 자리가 바뀔 때마다 높이가 안 맞는 의자가 있어서 너무 불편했기 (3) 초록색 단추 (4) 연두색 (5) 땅콩 모양

- 1 민수가 모자의 색과 그려진 그림을 자세히 이야기 해서 분실물 보관함에서 모자를 더 쉽게 찾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채점 기준 (1)에는 민수를 쓰고, (2)에는 잃어버린 물건을 더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2 잃어버린 모자의 색깔과 모양을 자세히 이야기 한 민수의 모습을 통해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면 잃어버린 물건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3 옛날 전화기는 위쪽이 좁은 과자 상자 모양이고 까만색이며, 전화기 가운데의 동그란 장치로 전화를 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4 이 글에서 설명한 옛날 전화기의 모양과 사용 방법을 읽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 씁니다.

채점 기준 옛날 전화기에 대해 새로 알게 된 점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이 글은 요즘 전화기와 옛날 전화기가 다르다고 말하며 옛날 전화기의 모양과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채점 기준 옛날 전화기를 설명하는 글이라는 것이 잘 드러나게 제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6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목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짐작하고,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7 자신이 설명하고 싶은 물건의 크기나 모양, 색깔, 쓰임 등 친구들이 궁금해할 만한 점을 생각하여 자세히 씁니다.

채점 기준 자신이 설명하고 싶은 물건을 하나 떠올려, 친구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8 욕심 많은 개는 고기를 물고 있는 다른 개를 보고 고기를 빼앗으려고 크게 짖었습니다.
- 9 ‘집으로’는 [지브로]로 소리 납니다.
- 10 발명하고 싶은 물건과 그 물건을 발명하려는 까닭, 그리고 그 물건의 특징이 어떠한지 표에서 찾아보고 씁니다.

채점 기준 (1)~(5)의 내용을 제시된 답과 같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8 마음을 짐작해요

기본 단원 평가

30~31쪽

- 1 ② 2 ⑤ 3 ㉠ 상추를 아끼는 마음
4 ② 5 ⑤ 6 ㉡ 7 ③
8 ② 9 (1) 물약을 먹었다. 등 (2) 쓴 약의 맛을 느끼고 싶지 않은 마음 등 10 (2) ㉠

- 1 친한 친구를 우연히 만나면 기쁘고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 2 글쓴이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학교 뒤뜰에 있는 텃밭으로 가서 아기 상추들에 물을 주었습니다.
- 3 상추를 아끼는 마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 4 글쓴이는 자전거를 혼자 탈 수 있게 되자 어머니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 5 글쓴이는 자전거를 혼자 탈 수 있게 되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 6 글쓴이는 물을 아껴서 사용하자는 마음을 담아 이 글을 썼습니다.
- 7 배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려 아침을 먹지 못 했습니다.
- 8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간 ‘나’는 주사를 맞을까 봐 긴장했고 걱정이 됐습니다.
- 9 글 ㉡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봅니다.

채점 기준 (1)에는 물약을 먹었다는 내용을 쓰고, (2)에는 쓴 약의 맛을 느끼고 싶지 않은 마음을 느낄 수 있다고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글 ㉡에서 일어난 일과 그때 ‘나’의 마음

	일어난 일	‘나’의 마음
가	‘나’는 아침에 배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렸다.	속상한 마음
나	오전 10시에 ‘나’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	긴장되는 마음 / 걱정스러운 마음
다	점심때 죽을 먹은 뒤 ‘나’는 쓴 물약을 먹었다.	쓴 약의 맛을 느끼고 싶지 않은 마음

- 10 (1)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고, (3)은 그림의 내용과 이야기가 관련이 없습니다.

서술형 50% 실력 **단원 평가**

32~33쪽

- 1 ㉔ 2 ㉓ 3 예 음악 시간에 친구들의 추천으로 교실 앞에 나가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를 부르다 틀려서 친구들이 크게 웃었다.
- 4 ㉓ 5 상추가 상진이 밭에 밟히는 것을 보고 속이 상했기 때문이다. 등
- 6 글쓴이의 말이나 행동,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 직접 드러난 표현을 찾아본다. 7 ㉔, ㉓, ㉔
- 8 (1) 아침에 밥을 먹으려는데 배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렸다. 등 (2) 오전 10시에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 등 9 ㉔, ㉔
- 10 (1) 예 아침에 (2) 예 오후 4시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을 찾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도와 드렸다.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 1 글쓴이는 학교에서 달리기를 하다 결승점을 얼마 남기지 않고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 2 글쓴이는 신발이 벗겨져서 부끄럽기도 하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 3 부끄럽거나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경험을 떠올려 씁니다.

채점 기준 부끄럽거나 당황스러웠던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㉓에 상추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직접 드러나 있습니다.
- 5 글쓴이는 상추가 상진이 밭에 밟혀 속이 상했습니다.

채점 기준 상추가 상진이 밭에 밟히는 것을 보고 속이 상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6 인물의 말이나 행동,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 직접 드러난 표현을 통해 인물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제시된 답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7 글 ㉔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아침’, 글 ㉔에는 ‘오전 10시’, 글 ㉔에는 ‘점심때’입니다.
- 8 글 ㉔과 ㉔에서 일어난 일을 각각 한 문장으로 정리해 씁니다.

채점 기준 (1)과 (2)에 제시된 답과 같은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9 이야기의 순서와 그 순서에 맞게 시간을 정하고, 내용을 상상하며 상황에 맞게 인물의 마음을 정합니다.
- 10 그림 ㉔에서 일이 일어난 때, 그림 ㉔에서 일어난 일과 주인공의 마음을 그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각 상상하여 씁니다.

채점 기준 (1)에는 가장 처음에 일이 일어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쓰고, (2)에는 그림 ㉔의 내용을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일어난 일, 그때 주인공의 마음을 떠올려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9 생각을 생생하게 나타내요

기본 단원 평가

34~35쪽

- 1 ㉔ 2 ㉔ 3 예 엉금엉금 기어간다.
- 4 ㉓ 5 한 문장을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 읽는다. / ‘누가(무엇이)’ 다음에 조금 쉬어 읽는다. / 문장과 문장 사이는 V보다 조금 더 길게 쉬어 읽는다. / ‘.’ 뒤에는 ≪를 하고 조금 더 쉬어 읽는다.
- 6 ㉔, ㉔ 7 (1) 바보 의사 (2) 고생
- 8 (1) 예 어려운 (2) 예 정성껏 9 ㉓
- 10 예 빨리 뛰어서 제시간에 학교에 도착했다.

- 1 ‘장화’는 꾸밈을 받는 말입니다.
- 2 ㉔는 ‘튼튼한’을 ‘하얀’ 등으로, ㉔은 ‘둥실둥실’을 ‘주렁주렁’ 등으로, ㉔의 ‘높이’는 ‘빠르게’ 등으로, ㉔의 ‘알록달록’은 ‘침병침병’ 등으로 바꿔 써야 알맞습니다.
- 3 거북이 기어가고 있는 모습을 꾸며 주는 말을 생각하여 문장을 만들어 씁니다.
- 4 수컷 사슴벌레의 생김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큰턱입니다.
- 5 ‘수컷 사슴벌레는’과 ‘큰턱 옆에는’ 다음에 조금 쉬어 읽었고, 문장과 문장 사이는 V보다 조금 더 길게 쉬어 읽었습니다.

채점 기준 제시된 답 중 한 가지를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6 장기려 선생님은 밀린 입원비 때문에 퇴원 못 하는 환자를 사무장님 몰래 뒷문으로 내보내 주었고 거지에게 자신의 월급을 통째로 주었습니다.

- 7 장기려 선생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려고 사서 고생을 하신다고 ‘바보 의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 8 장기려 선생님은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정성껏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 9 ‘상쾌한’은 ‘느낌이 시원하고 산뜻한.’이라는 뜻입니다.
- 10 앞의 친구가 말한 문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생각해 알맞은 꾸며 주는 말을 넣어 말합니다.

서술형 50% 실력 **단원 평가**

36~37쪽

- 1 ⑤ 2 ④
- 3 예 내 생각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 느낌을 실감 나게 표현할 수 있다. / 내 생각을 더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
- 4 예 수박의 모양을 보고 동그란 수박이라고 생각해서 ‘동그란’을 골랐다. / 수박이 내 손보다 크니까 ‘커다란’ 수박이라고 했다.
- 5 예 아이들이 첨벙첨벙 수영을 한다. / 아이들이 즐겁게 물놀이를 한다.
- 6 (1) 예 커다란 (2) 예 즐겁게
- 7 (1) 수컷 사슴벌레의 먹이 (2) 다른 수컷 사슴벌레와 힘겨루기를 한다. 등 8 V, V, V
- 9 ⑤ 10 예 선생님은 겉겉 웃으며 나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 1 ‘노란, 굵은, 후드득’은 꾸며 주는 말입니다.
- 2 비가 내리는 모습을 꾸며 주는 말로 알맞은 것은 ‘주룩주룩’입니다.

오답 피하기

- ① 데굴데굴: 어떤 것이 굴러가는 모양.
 ② 모락모락: 연기나 냄새 등이 피어오르는 모양.
 ③ 뭉게뭉게: 연기나 구름 등이 잇따라 나오는 모양.
 ⑤ 휘청휘청: 가늘고 긴 물체가 흔들리는 모양.

- 3 꾸며 주는 말을 사용하면 내 생각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고, 느낌을 실감 나게 표현할 수 있으며, 내 생각을 더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제시된 답 중 한 가지 이상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동그란’과 ‘커다란’ 중에 골라 씁니다.

채점 기준 ‘동그란’과 ‘커다란’ 중 하나를 고른 까닭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그림을 보고 꾸며 주고 싶은 대상과 어울리는 꾸며 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제시된 답 이외에도 ‘아이들이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있다.’, ‘사람들이 넓은 수영장에서 즐겁게 놀고 있다.’ 등의 문장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6 이 외에도 (1)에는 ‘튼튼한, 촌촌한’ 등, (2)에는 ‘열심히, 신나게’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7 첫 번째 문단은 수컷 사슴벌레의 먹이가 나뭇진이라는 것, 두 번째 문단은 수컷 사슴벌레가 다른 수컷 사슴벌레와 자주 힘겨루기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8 ‘누가(무엇이)’ 다음에 조금 쉬어 읽고, ‘누가(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이 길면 한 번 더 쉬어 읽으며, 문장과 문장 사이는 V보다 조금 더 길게 쉬어 읽습니다. ‘.’ 뒤에는 V를 하고 조금 더 쉬어 읽는다.
- 9 글쓴이는 장기려 선생님처럼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돕는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10 꾸며 주는 말을 사용해 씁니다.

채점 기준 ‘선생님은 허허 웃으며 나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자상한 선생님은 겉겉 웃으며 나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등과 같이 꾸며 주는 말을 넣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10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기본 단원 평가

38~39쪽

- 1 ③ 2 예 재희야, 정말 미안해!
- 3 ① 4 ④ 5 고마웠을 것이다. 등
- 6 예 과자를 먹고 나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어때? 7 ③ 8 ⑤ 9 “지석아, 괜 찮아. 실수로 그런 건데, 뭘.” 10 ⑤

- 1 현수가 지나가다가 재희의 팔을 쳐서 재희의 그림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 2 재희의 속상한 기분을 생각하며 사과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 3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며 말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듣는 사람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전할 수 있고 즐겁게 대화할 수 있으며 상대방과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 4 현수는 재회의 상황을 생각하고, 재회를 위한 마음을 담아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 5 현수가 자신의 기분이 어떤지 먼저 알아주어 고마웠을 것이고, 줄넘기가 잘 안되어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마음이 조금 풀렸을 것입니다.
- 6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친구들에게 할 수 있는 고운 말을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자는 내용을 고운 말로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7 “까불지 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 8 지석이가 물고 가던 공이 민지가 찬 공과 부딪치는 바람에 민지는 공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 9 민지는 미안해하는 지석이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석이의 기분을 생각하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 10 다짐 쪽지에는 자신이 고운 말을 쓰지 않았던 상황과 그때에 써야 할 고운 말을 떠올려 씁니다.

서술형 50% 실력 **단원 평가**

40~41쪽

- 1 나 2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듣는 사람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전할 수 있다. / 즐겁게 대화할 수 있다. / 듣는 사람과 더 친해질 수 있다. 등
- 3 ④ 4 예 현수야, 재회는 지금 줄넘기가 잘 안되어서 속상해하고 있어. 서로 즐겁게 대화할 수 있도록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며 말하자.
- 5 ④ 6 예 많이 무겁지? 나랑 나눠 들자.
- 7 ③, ⑤ 8 예 넘어졌을 때에는 속상하고 화가 났겠지만 지석이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풀렸을 것이다.
- 9 ② 10 예 나는 서준이와 그네를 서로 먼저 타겠다고 다투며 기분 나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친구에게 “먼저 타. 다음에 내가 탈게.”라고 양보하며 고운 말을 쓰겠습니다. / 예 김지민

- 1 대화 나에서는 서로의 기분을 생각하며 먼저 사과하고 친구가 괜찮은지 살펴봐 주었습니다.
- 2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며 말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듣는 사람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전할 수 있으며, 듣는 사람과 즐겁게 대화할 수 있고 듣는 사람과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듣는 사람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전할 수 있고, 즐겁게 대화할 수 있으며 더 친해질 수 있다는 내용 중 한 가지를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현수는 재회가 속상해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같이 놀자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 4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현수에게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며 말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채점 기준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며 말하자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자신의 기분보다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며 말하기

- 듣는 사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 듣는 사람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 말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 6 무거운 것을 들고 가고 있는 친구의 기분을 생각하며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어울립니다.

채점 기준 무거운 것을 들고 가는 친구의 기분을 생각하며 도와주겠다는 말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7 지석이가 진심으로 사과하자 민지는 지석이에게 괜찮다고 말하고 지석이와 함께 결승선으로 들어왔습니다.
- 8 처음에 민지는 넘어진 것이 아프고 부끄러워 지석이에게 화가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석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일으켜 주어서 마음이 풀렸을 것입니다.

채점 기준 민지는 넘어졌을 때에는 속상했지만 지석이의 사과를 들은 후에 마음이 풀렸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9 지수는 줄넘기를 잘 못하는 친구에게 “잘할 수 있어. 힘내!”라고 고운 말을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10 고운 말을 쓰지 않았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고, 어떤 고운 말을 쓸지 생각해 다짐 쪽지를 씁니다.

채점 기준 고운 말을 쓰지 않았던 상황과 그 상황에서
써야 할 고운 말을 생각해 다짐 쪽지를 알맞게 썼으면 정
답으로 합니다.

11 상상의 날개를 펴요

기본 단원 평가

42~43쪽

- 1 ② 2 (1) 예 착하고 순진하게 생겼을 것 같
다. (2) 예 비싼 비단옷을 입고 있을 것 같다.
- 3 ④ 4 ②
- 5 예 우쭐대는 표정 / 잘난 척하는 표정
- 6 ① 7 ①, ② 8 자신의 생각과 느낌
- 9 ⑤ 10 ①

- 1 팽이로 부지런히 밭을 일구는 농사꾼의 행동을
몸짓으로 나타냅니다.
- 2 욕심이 많아 농사꾼의 신기한 독을 빼앗으려고
억지를 부리는 부자 영감과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는 순진한 농사꾼의 모습을 상상해 씁니다.

채점 기준 착하고 순진한 농사꾼의 모습과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의 모습을 알맞게 떠올려 썼으면 정답으로 합
니다.

- 3 아저씨가 딸기를 모두 사 버려서 동네 사람들은
딸기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 4 동네 사람들은 아저씨가 딸기를 모두 가져가서
딸기를 먹지 못하게 되자 아저씨를 욕심쟁이라고
고 욕하며 미워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이야기를 읽고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기

- 이야기의 상황이 어떠한지 살펴봅니다.
-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살펴봅니다.

- 5 먹을 것을 발견해 기쁘고 자랑스러운 마음 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표정으로 말하는 것이 어울립
니다.
- 6 여우는 이가 너무 아파서 영영 울며 선생님께 제
발 도와 달라고 말했습니다.
- 7 선생님은 딱한 여우를 보고 걱정이 되어 치료해
주고 싶었지만, 쥐에게 위험한 동물인 여우를 치
료해 주어야 할지 고민이 되어 부인에게 물어보
았습니다.
- 8 이 글은 『토끼와 자라』를 읽고 든 생각과 느낌에
해당합니다.
- 9 기억에 남는 이야기 속 인물을 고르고, 인물을
고른 까닭을 떠올린 후 인물 카드를 만듭니다.
- 10 여우는 혼잣말을 하고 있으므로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읽는 것이 어울립니다.

서술형 50% 실력 단원 평가

44~45쪽

- 1 ② 2 예 고개를 푹 숙이고 힘없이 걸어간다.
- 3 예 심술궂은 얼굴을 하고 있을 것 같다.
- 4 ④ 5 예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
다. 꼬마가 딸기를 좋아한다고 말했지만 어떻게 해
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 6 ② 7 ① 8 ㉠
- 9 (1) 예 콩쥐 (2) 예 콩쥐의 착한 마음씨가 좋기 때
문이다. 10 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 1 신기한 독이 탐이 난 원님은 농사꾼과 부자 영감
에게서 독을 빼앗기 위해 독을 나라에 바치라고
했습니다.
- 2 독을 빼앗겨 슬프고 허탈한 마음으로 힘없이 걸
어가는 농사꾼과 부자 영감의 행동을 몸짓으로
표현합니다.

채점 기준 실망한 표정으로 힘없이 돌아가는 농사꾼과
부자 영감의 행동을 몸짓으로 알맞게 나타내어 썼으면 정
답으로 합니다.

- 3 욕심이 많은 원님의 모습은 어떠할지 떠올려 봅
니다.

채점 기준 욕심이 많아 독을 나라에 바치라고 한 원님의
심술궂은 모습을 알맞게 떠올려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아저씨에게 수박을 드리러 온 꼬마는 딸기를 좋아한다고 말했지만 아저씨가 딸기를 주지 않자 슬프고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어 눈물이 그렇게 령했습니다.
- 5 아저씨는 꼬마의 말을 듣고 당황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으며, 울며 뛰어가는 꼬마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채점 기준 꼬마의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한 아저씨의 마음과 그 까닭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6 여우는 드소토 선생님을 잡아먹고 싶어서 드소토 선생님이 입안으로 들어오자 입을 다무는 장난을 쳤습니다.
- 7 ‘선생님이 호되게 말했어요.’라는 부분을 통해 드소토 선생님이 여우에게 화난 목소리로 말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 8 ㉠은 『토끼와 자라』 이야기의 내용을 쓴 부분입니다.
- 9 기억에 남는 이야기 속 인물을 떠올려 보고 인물을 고른 뒤, 인물을 고른 까닭을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 속 인물과 그 인물을 고른 까닭을 적절하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0 여우는 갑자기 입을 벌릴 수 없게 되었으므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채점 기준 갑자기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여우의 마음에 어울리는 표정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중간 평가

46~48쪽

- 1 ① 2 ① 3 ㉠ 궁금한 듯이 고개를 가우뚱하는 동작으로 표현하고 싶다.
- 4 ④, ⑤ 5 승현 6 ④ 7 ⑤
- 8 종달새 9 (3) ○ 10 겁나요 / 무서워요 등
- 11 초록색 12 ① 13 ㉠, ㉡
- 14 ⑤ 15 ②
- 16 ㉠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낱말을 익힐 수 있다. /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할 수 있다. 17 ④
- 18 (1) 마치고 (2) 이따가 19 ⑤
- 20 ①, ④, ⑤

- 1 이 시에는 친구와 다툰 뒤에 화해하고 싶은 인물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 2 친구들은 시를 주고받으며 읽고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시를 읽는 여러 가지 방법

- 주고받으며 읽기
-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며 읽기
- 떠오르는 장면을 행동으로 표현하며 읽기 등

- 3 ㉠을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왜 안 부르지요?”에 어울리는 동작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달콤하고 조금 매콤하고’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보충 자료 「떡볶이」에 어울리는 그림



- 5 ‘떡볶이를 먹고 싶은 마음’, ‘친구와 함께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과 같은 내용을 말한 친구를 찾아 봅니다.
- 6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해야 하므로 준비한 내용을 보며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 7 숲 한가운데에 넓은 찾길이 생겨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이 끊겨 동물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 8 종달새는 찾길 근처에서 낮게 날면 차가 일으키는 바람에 휘말려서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 9 동물들이 안전하게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 10 ‘두려워요’는 ‘겁나요’, ‘무서워요’ 등과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 11 방울토마토는 처음에는 초록색이었다가 커서 익으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 12 ‘애들아, 나는 오늘 좀 슬펐어.’를 통해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13 글에서 인물의 마음이 나타난 부분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 14 친구들이 말한 낱말의 첫 글자가 같으므로 ‘첫 글자로 말 잇기 놀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답 피하기

- ① 앞의 낱말 끝 글자와 뒤의 낱말 첫 글자가 같은 놀이
- ② 묻고 답하면서 말을 주고받는 놀이
- ③ 앞 친구의 말을 반복하고 새로운 말을 덧붙이는 놀이
- ④ 비슷한 것을 떠올려서 말을 이어 가는 놀이

- 15 ‘나’ 자로 시작하는 낱말을 말해야 합니다.
16 말놀이를 하면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낱말을 익힐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말놀이를 하면 좋은 점을 정확히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7 ‘시키다’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게 하다.’라는 뜻이므로 ④에는 ‘더운 기가 없어지게 하다.’라는 ‘식혀서’를 써야 합니다.
18 ‘마치고’는 ‘어떤 일을 끝내고.’의 뜻이고, ‘이따가’는 ‘내가 잠시 시간을 두고 있는 것.’의 뜻입니다.
19 ㉠『』은 편지를 쓴 까닭이 잘 드러나는 부분으로 편지의 형식 중 ‘전하고 싶은 말’에 해당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한결이가 쓴 편지의 형식

받을 사람	영양 선생님께
첫인사	영양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1반 김한결이에요.
전하고 싶은 말	저희를 위해 날마다 맛있는 급식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영양 선생님께서 반찬을 잘 먹는다고 칭찬해 주셔서 미역무침도 다 먹었어요. 급식을 먹는 게 항상 즐거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끝인사	그럼 안녕히 계세요.
쓴 날짜	20〇〇년 4월 21일
쓴 사람	한결 올림

- 20 ‘그리고’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이어 주는 말이고, ‘등잔불’은 등잔에 켜 불을 뜻하는 낱말로 이 낱말로는 일이 일어난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기말 평가 중간 이후

49~51쪽

- 1 ㉢ 2 저녁, 밤 3 밤에 호랑이 배 속에서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가 만났다. 등
4 옛날 라디오 5 (1) ○ (2) ○
6 ㉠ 7 지브로 8 아침, 점심때, 오전 10시
9 ㉣
10 (1) ㉡ 속상한 마음 (2) ㉢ 긴장되는 마음 / 걱정스러운 마음 11 (1) ㉠ (2) ㉡ (3) ㉠
12 민준 13 ㉡ 구름이 하늘에 둥실둥실 떠 있다. / 하얀 구름이 하늘에 높이 떠 있다.
14 ㉠ 15 ㉣ 16 ∨, ∷
17 ㉡ 도서관에서는 책 읽는 사람들이 있으니 조용히 하자.
18 괜찮다고 말했다. 등 19 ㉡ 20 ㉡

- 1 아침에 호랑이는 소금 장수를 삼켰습니다.
2 글 ㉣는 저녁과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3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밤’이며 일어난 일은 호랑이 배 속에서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가 만난 것입니다.

채점 기준 ‘밤에 호랑이 배 속에서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가 만났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이 글에서는 요즘 라디오와 많이 다른 옛날 라디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5 옛날 라디오는 작은 네모 상자 모양이며 동그란 장치를 돌려서 빨간 선을 움직이면 듣고 싶은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이 글의 주요 내용

설명하는 대상	옛날 라디오
설명하는 대상의 모양	텔레비전보다 작은 네모 상자 모양이다. 동그란 장치가 있는 곳 옆에는 투명한 자처럼 생긴 것이 있고 그 안에 움직일 수 있는 빨간 선이 있다.
설명하는 대상의 사용 방법	동그란 장치를 돌려서 빨간 선을 움직이면 방송을 들을 수 있다.

- 6 ㉠, ㉡, ㉢, ㉣은 글자와 같게 소리가 나고, ㉠만 받침이 뒷말 첫소리가 되어 소리 납니다.
7 ‘집으로’에서 받침 ‘ㅂ’이 뒤에 오는 ‘오’를 만나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지브로]로 소리 납니다.

- 8 글 ㉠~㉢의 각각 첫 번째 문장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 9 글쓴이는 점심때가 되어 죽을 먹은 뒤에 쓴 물약을 먹었습니다.
- 10 글 ㉠에서 글쓴이는 몸이 아파서 속상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글 ㉢에서는 병원에서 주사를 맞을까 봐 긴장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글쓴이에게 있었던 일과 그때의 마음

	시간을 나타내는 말	일어난 일	글쓴이의 마음
㉠	아침	배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속상한 마음
㉢	오전 10시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긴장되는 마음
㉤	점심때	죽을 먹은 뒤에 쓴 물약을 먹었습니다.	쓴 약의 맛을 느끼고 싶지 않은 마음

- 11 ㉠은 벌을 본 글쓴이의 상황, ㉢은 벌 때문에 화장을 못 갈 뻔했다가 친구들을 따라 화장실에 간 글쓴이의 행동, ㉤은 무서웠던 글쓴이의 마음을 드러낸 부분에 해당합니다.
- 12 연아는 기쁘고 자랑스러운 마음, 태하는 반갑고 궁금한 마음, 지안이는 슬프고 속상한 마음을 느꼈을 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 13 구름이 떠 있는 모습을 꾸며 주는 말을 떠올립니다.

채점 기준 '하얀, 커다란, 둥실둥실, 뭉게뭉게, 높이' 등과 같이 구름이 떠 있는 모습을 꾸며 주는 말을 넣어 문장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4 이 글에서는 수컷 사슴벌레의 먹이가 나뭇진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15 수컷 사슴벌레는 더듬이를 세워 나뭇진의 냄새를 맡습니다.
- 16 '누가(무엇이)' 다음에 조금 쉬어 읽고, 문장과 문장 사이는 V보다 조금 더 길게 쉬어 읽습니다.
- 17 듣는 친구들의 기분을 생각하며 도서관에서 조용히 하자고 고운 말로 부탁해 봅니다.

- 18 민지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지석이의 말에 실수로 그런 것이니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 19 지석이가 진심으로 사과하자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던 민지는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 20 드소토 부부는 걱정이 되어 잠을 잘 수가 없었으므로 고민이 있는 어두운 얼굴을 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읽는 것이 어울립니다.

기말 평가 전 범위

52~54쪽

- 1 ㉢ 2 예 조그만 개미 발 3 나
4 ㉡ 5 기빠요 / 즐거워요 등 6 ㉢
7 예 원숭이도 있고, 기린도 있고.
8 (1) 식혀서 (2) 시켜서 9 이번 여름 방학에 할머니께 놀러 가겠다고 말씀드리려고 등
10 ㉠ 11 ㉤ 12 ㉢ → ㉡ → ㉠
13 ㉡ 14 (1) 구름과 (2) 구르미 (3) 구르는
15 ㉡ 16 ㉡ 17 예 따뜻한
18 ㉤ 19 (1) 예 수지야, 미안해. 다치지 않았니? (2) 예 응, 괜찮아. 너는 괜찮니? 20 ㉠

- 1 이 시를 읽고 아이가 조심조심 풀밭을 걷는 장면이나 아이가 풀밭에 앉아 풀꽃을 자세히 살펴보는 장면 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 2 아이는 풀밭을 걸을 때 풀꽃에게 미안하다고 했으므로 폭신한 풍선 발, 가벼운 스핀지 발 등 풀꽃이 다치지 않을 물건을 떠올려 봅니다.
- 3 그림 ㉠에서 여자아이는 자신 없는 몸짓으로 말끝을 흐리며 말했고, 그림 ㉢에서는 자신 있는 태도로 토박토박 말했습니다.
- 4 행복한 마음을 느낄 때로 알맞은 상황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릴 때입니다.

오답 피하기

- ㉠ 두려운 마음 등
㉢, ㉤ 슬픈 마음 등
㉡ 샘나는 마음 등

- 5 '행복해요'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은 '기빠요', '즐거워요' 등이 있습니다.
- 6 '사과는 빨개 → 빨가면 고추장 → 고추장은 매워 → 매우면…….'과 같이 비슷한 것을 떠올려 말을 이어 가는 놀이는 콩지 따기 말놀이입니다.

- 7 말 덧붙이기 놀이를 할 때에는 앞 친구의 말을 반복하고 새로운 말을 덧붙여야 합니다.

채점 기준 말 덧붙이기 놀이 방법을 알고 앞 친구의 말을 반복하고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을 덧붙여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8 ‘시켜서’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게 해서.’를 뜻하는 말이고, ‘식혀서’는 ‘더운 기운을 없애.’를 뜻하는 말입니다.
- 9 민수는 작년 여름 방학에 할머니 댁에 가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으며 이번 여름 방학에는 꼭 시골에 놀러 가겠다고 말씀드리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 10 ㉠은 끝인사에 해당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민수가 쓴 편지의 형식

받는 사람	할머니께
첫인사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 민수예요.
전하고 싶은 말	작년 여름 방학에 할머니 댁에 가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할머니 댁에서 수박도 먹고 개울에서 놀고 싶어요. 이번 여름 방학에는 꼭 시골에 놀러 갈게요.
끝인사	그럼 안녕히 계세요.
쓴 날짜	20〇〇년 5월 8일
보내는 사람	민수 올림

- 11 여자아이가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말하지 않아서 남자아이는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12 여자아이의 이야기에서 차례를 나타내는 말을 찾아 순서를 파악해 봅니다. ‘㉠아침 → ㉡오후 → ㉢밤 열두 시’의 차례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13 남자아이는 잃어버린 자신의 실내화의 색깔과 모양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 14 ‘구름’의 ‘ㅁ’ 받침이 뒤에 오는 ‘ㅇ’을 만나면 받침이 뒷말 첫소리가 되어 소리 납니다.
- 15 글쓴이의 이름을 통해 글쓴이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 16 이 글 속 인물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려고 사서 고생하시는 장기려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 17 이 글에 나타난 장기려 선생님은 마음이 따뜻하고 남을 돕는 사람입니다.

- 18 민재와 수지는 서로 화를 내며 친구에게 잘못을 미루고 있으므로 대화하고 난 뒤에 화가 났을 것입니다.

- 19 먼저 사과하고 친구가 괜찮은지 살펴봐 주면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며 말합니다.

채점 기준 복도에서 친구와 부딪친 상황에서 친구의 기분을 생각하며 할 수 있는 고운 말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20 아저씨는 딸기잼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즐겁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